



왕이 살해 당했다!



"Funny how you can be friends with somebody
for so long but never really know him."





들어가며

고대 서아시아 제국의 전제군주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파라오의 지위와 권력은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었다. 파라오는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 행정과 사법을 담당했으며 최고위 신관으로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전국의 신전에서 거행되는 모든 의례와 축제를 주관했다. 또한 침략전쟁이나 대외원정 시에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전쟁신  mntw "몬투"(Montu)의 축복을 받아 성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파라오와 고대 서아시아의 다른 전제군주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성한 왕권(divine kingship)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있다. 파라오는 단순히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창조주인 태양신을 대신하여 인간 세계에 신적인 질서인  mꜣt "마아트"(ma'at)를 구현하고 유지하는 태양신의 대리자였으며 인간을 대표하여 신과 홀로 소통할 수 있는 지상에 현현^{顯現}한 살아 있는 신이었다. 따라서 이집트에서 왕을 시살^{弑殺}한다는 것은 지상의 신을 시살하는 것이었으며 왕의 시해는 이집트인들에게는 창조주가 설립한 우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일부 문헌증거는 일견 신성불가침한 신-왕(god-king)의 권위에 대해 조금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이들 문헌증거는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이집트 역사에서 여러 차례 존재했었다는 믿기 어려운 가능성을 시사 혹은 확증한다. No man is a hero to his valet. "영웅도 자신의 시종에게는 한낱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는 영국의 속담을 입증하듯 고대 이집트에서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혹은 저지르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왕의 경호원과 궁녀들 같이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측근들이었다. 특히 서열이 낮은 후궁들은 왕을 제거한 후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왕위 계승이 거의 불가능한 자신의 아들을 왕좌에 앉히려는 음모를 꾸몄으며 궁정의 유력인사나 관리, 근위병들을 음모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왕의 시해라는 최악의 반역은 신-왕을 섬기던 이집트인들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기록되었을까? 이집트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최악의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국왕시해(regicide)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자.



제 1 부: 파라오의 본질

1.1. 고대 이집트에서의 신-왕의 개념

인류의 역사에서 왕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왕을 시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런 시도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성공하는 사례도 그에 못지 않게 많았으며 왕의 예기치 않은 죽음이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단순히 지배를 받는 다른 인간들보다 조금 더 탁월한 인간이 아니라 반인반신(demigod)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며 신-왕^{神王}(god-king)이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감각·인식·의지를 갖춘 존재를 (1)  ntrw “신들,” (2)  nswt “신-왕,” (3)  nhw “사람,” (4)  3h3w “아크”(akh), 등 네 부류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¹ 요컨대 그들의 왕은 힘과 능력 혹은 지혜에서 다른 인간들보다 더 우세한 필멸의 지배자들과는 달리, 우주적 질서 안에서 천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일종의 “신성한 인터페이스”(holy interface)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던 것이다.


여기서 파라오가 가진 신성한 왕권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보자. 절대적 권력을 가진 전제군주로서 반인반신의 지위를 누리던 이집트의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인간을 대표하여 신들을 위한 신전의례에 참가하고 군 통수권과 정치권력을 활용하여 한 도시국가 혹은 영토국가를 철권으로 지배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군주들은 어느 정도의 신성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네덜란드 출신의 이집트학자 헨리 프랑크포르트(Henri Frankfort: 1897-1954년)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렸던 신성은 “현현”(epiphany)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에게 부여되었던 신성은 “신격화”(apotheosis)로 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Frankfort, 1978: vi, 5). 다시 말해 이집트의 파라오는 지상에 현현한 신으로서 다른 신들과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신의 일원이었던 반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신의 세계에 근접할 수 있었지만 편입할 수는 없었던 “인간계에서 가장 탁월한 인간”이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경우, 파라오와 같은 현현의 수준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이와 같은 시도는 일종의 오만(hubris)으로 여겨졌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중에서 최초로 자신을 신과 동등한 지위까지 높이려고 했던 왕은 악카드 왕조(Akkadian Dynasty)의                    


초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Van De Mieroop, 2007: 73).² 예를 들어 『악카드의 저주』라는 문학작품에 따르면 나람-썬은 신들의 왕인  EN.LIL₂ “엔릴”(Enlil)의 허락도 없이 그의 신전인  E₂.KUR “에쿠르”(Ekur)의 개축을 강행하고 이에 분노한 엔릴은 당시 슈메르와 악카드 문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자그로스 산맥(Zagros Mountains)의 산악민족인 구티 족(Gutians)을 시켜 악카드 왕조를 멸망시킨다.

『악카드의 저주』 149-161행

으르렁거리는 천둥이 슈메르 전체를 덮었고 / 밀어닥치는 홍수에 누구도 맞설 수 없었다.
엔릴은 그가 사랑하는 에쿠르가 파괴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복할까 (생각했다.)
구빈(Gubin) 산으로 얼굴을 쳐들었다. / 개^[개]들을 찾아 넓은 산맥을 해매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끼여보지 않았으며 / 나라에서 썸을 해본 적이 없었다.
묶여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인 구티 족.³
사람 정신인데 개 (같은) 생각을 하며 / 원숭이 모습인 그들을 엔릴이 산에서 내려오게 했다.
메뚜기 떼처럼 기어들어 왔고 / 들짐승 텃처럼 그들은 들판에서 팔을 폈다.
아무것도 그들의 팔에서 빠져나가지 못했고 / 누구도 그들의 팔에서 도망가지 못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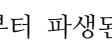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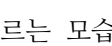
신들이 왕의 행위에 분노하여 왕을 비롯한 인간세계를 징벌하는 이야기는 무리한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신들에 대한 숭배를 금지했던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의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2-1336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집트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신들과의 관계에 있어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은 바빌로니아(Babylonia)의 아키투(Akitu) 신년 축제 기간 동안 왕이 도시의 주신  AMAR.UTU 마르둑(Marduk) 앞에서 속죄와 함께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부정고백^{否定告白} (Negative Confession)을 하고 마르둑의 신관으로부터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² 여기서 『악카드의 저주』가 나람-썬이 후대에 이미 오만을 대표하는 신화적 인물 혹은 전형적 인물이 된 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것은 나람-썬 당대의 이미지가 아니라 후대에 전승되고 변형된 인상이자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람-썬 치세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자신들의 왕에 대해 오만함을 느꼈는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³ 여기서 산악민족인 구티 족은 문명생활을 모르는 야만족으로 묘사된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본다는 것은 도시 국가와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을, “나라에서 썸을” 한다는 것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가치를 가진 다른 물품이나 금전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 행위를 한다는 것을 각각 의미한다. 아울러 구티 족은 개^[개]로 비유되는데 공교롭게도 슈메르어 단어  UR “우르”는 “개”와 함께 “남자” • “용사”를 뜻한다.

⁴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조철수, 『수메르 신화: 인류의 역사시대를 시작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서해문집, (2003), 440쪽.

수 있다.⁵

반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신들의 일원으로서 궁극적으로(즉, 사망한 후) 천상계에 속하는 동시에 지상에서 태양신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신성한 중간자”(divine mediator)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인 파라오가 보유했던 반인반신의 특성은  *ntr nfr* “젊은 신”(young god)이라는 호칭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호칭은 당대에 재위 중인 (살아 있는) 왕의 왕명 앞뒤에 붙여졌다. “젊은 신”은 아직 천상계에 진입하여 완전한 신이 되지 못한 지상의 신-왕, 요컨대 다른 큰 신들에 비해 신격이 아직은 낮은 신(young god > junior god)을 의미한다(Allen, 2010: 68). 반면, 왕이 사망한 후 적절한 장례 절차를 거쳐 명계에서 완전한 생명을 부여 받으면 다른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신의 반열에 오르는데 이처럼 서거한 전대의 왕은  *ntr 3* “위대한 신”(great god > senior god)이라는 호칭을 부여 받았다. 파라오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호칭으로는  *nb hꜥw* “현현의 주”를 들 수 있는데, 동사  *hꜥj* “나타나다”로부터 파생된 명사  *hꜥw* “드러남”(appearance) 혹은 “현현”(epiphany)은 해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단순히 어떤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매우 가시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뉘앙스, 즉 “영광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다”(to appear in glory)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파라오를 *nb hꜥw* “현현의 주”라 칭하는 것은 매일 아침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신과 같이 신민 ^{臣民}들 앞에 자신의 위광 ^{威光}을 드러내는 신-왕의 면모를 적확하게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호칭과 마찬가지로 왕의 공식적인 직함 역시 그의 신성을 표현한다. 우선 “왕” 혹은 “군주”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가장 일반적인 직함  *nswt* “골풀에 속하시는 이”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서 나일강 유역의 습지에 약 1미터 높이로 자라는 다년생 풀인 골풀(sedge)은 수련(water lily)과 함께 이집트 남부 상이집트의 상징식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골풀에 속하시는 이”의 원래 의미는 “상이집트의 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명사로서 “골풀에 속하시는 이”는 칙령을 반포하고 관리들을 임명하며 신들 앞에서 이집트를 대표하는 왕의 속성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한편 신적인 권능을 소유하게 된 인간-개인으로서는 왕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통상 “폐하”(Majesty)로 번역되는  *hm* “몸체”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원래는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물리적인 실체인 육신으로 구체화된 것을 뜻하는

⁵ 물론 이집트 파라오의 신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다. 신들과 파라오의 관계에서 파라오가 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형상, 즉 신들보다 낮은 지위의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페피 1세(Pepy I: 기원전 2321-2287년) 치세부터인데 이후 파라오들은 보다 빈번하게 신들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취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후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2-1336년)의 아마르나 “종교개혁” 시대(Amarna Period) 이후에는 테베의 주신 아문(Amun)과 파라오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즉 부자 관계로 고착되면서 왕이 신에게 절대적인 경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와 같은 이집트 조형예술의 도상을 근거로 파라오가 정말 신적인 지위를 누렸다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아울러 고대 이집트의 서사문학 작품에서는 파라오가 신들과 같은 권능을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는데 일례로 중왕국 시대 서사문학 작품인 『웨스트카 파피루스』(Papyrus Westcar)에 등장하는 고왕국 시대 제 4 왕조의 스네페루(Sneferu: 기원전 2613-2589년)는 수석 독경사제 자자엠앙크(Djadjaemankh)에게 주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명하고 그의 아들 쿠푸(Khufu: 기원전 2589-2566년) 역시 현인 제디(Djedi)에게 자신이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한편, 독경사제 자자엠앙크와 현인 제디는 역사적 실존인물이 아니다.

“화신”^{化身}(incarnation)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신성한 왕권을 체화^{體化}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으로서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⁶ “골풀에 속하시는 이”와 “몸체” • “화신”은 종종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집트 서사문학 작품 중 하나인 『웨스트카 파피루스』(Papyrus Westcar)에는 *hm n nswt-bjt (nb-k3)* “상하이집트의 왕 네브카 페하”라는 표현이 등장한다(*p.Westcar*, 3,15). 그런데 이 어구를 직역하면 “네브카(라는 구체적인 독립된 인격체로 구현된) 왕권의 화신” 정도의 의미가 될 것이다.

1.2. 이집트인들의 시각에서 본 파라오

신들에 대한 찬가가 신들의 신격과 속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파라오를 찬양하는 찬가는 고대 이집트인들 – 적어도 지배계층들 – 이 태양신의 대리자인 파라오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왕에 대한 찬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문학 작품인 『시누헤 이야기』(Tale of Sinuhe)에서 시누헤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의 족장들에게 새로 즉위한 파라오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부른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 센와세레트 1 세(Senwosret I: 기원전 1956-1911 년)의 찬가와 왕실 의례에서 낭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같은 왕조의 센와세레트 3 세(Senwosret III: 기원전 1870-1831 년)를 위한 찬가, 즉 『센와세레트 3 세 찬가』(Hymn to Senwosret III)를 들 수 있다. 우선 『시누헤 이야기』에 포함된 센와세레트 1 세에 대한 찬가를 살펴보자.

『시누헤 이야기』 (*p.Berlin 3022*, 47-56 및 65-70)

ntr pw grt nn snnw:f / nn ky hpr.(w) hr h3t.f
nb s3t pw jqr shrw mnḥ wdt-mdw / prt h3t hft wd.f
ntf d3r h3swt / jw jt.f m hnw ḥ.f / smj.f s3t.n.f hpr
nhṯ pw grt jr m hpš.f / pr-ḥ nn twt n.f
m33.t(w).f h3.f r-pdtw / ḥḥm.f r-d3w
wḥḥ pw sgnn drwt / nj t3z.n hrwyw.f skw
jḥ hr pw t33 wpwt / nj ḥḥ.n.tw m h3w.f

... ..

nb jm(3)t pw ḥ3 bnjt / jt.n.f(m) mrwt
mr sw njwt.f r ḥḥw / ḥḥ st jm.f r ntr.sn
sw3 t3yw hjmwt / hr rnnwt jm.f jw.f m nswt
jt.n.f m swht / jw hr.(f) r.f dr mst.f

⁶ 따라서 이 용어는 개별적인 왕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예컨대 *hm.f* “그의 화신”(His Incarnation > His Majesty)은 3인칭의 왕을, *hm.k* “그대의 화신”(Your Incarnation > Your Majesty)은 2인칭의 왕을, 즉 왕에게 직접 말을 할 때, 그리고 *hm.j* “나의 화신”(My Incarnation > My Majesty)은 1인칭의 왕^[朕]을, 즉 왕이 자신을 지칭할 때 각각 사용된다. 한편, 추상적인 왕권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 파라오로 구현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했다는 기독교의 “성육신”^{成肉身}(Incarnation) 개념과도 비교될 수 있다.

sꜥꜥ pw msywt hnꜥ.f / wꜥ pw n dd ntr

그[센와세레트 1세]는 버금가는 이 없는 신이시라 / 그보다 앞서 발현한 이는 없음이라,
그는 지혜의 주, 뛰어난 계획과 권능의 명령을 소유하신 이라⁷ /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모두) 그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부왕[아멘엠평트 1세]께서 왕궁에 계실 때 / 이방의 땅을 제압하시는 이가 그이시니 /
부왕께서 실현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고하시네,
더구나 그는 그의 강한 팔로 행하시는 승자이시라 / 대등한 자가 없는 전사이시니,
사람들이 그가 활잡이들[이민족들]을 공격할 때를 보실 때 / 그가 대적자들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손을 무력하게 하여 예봉을 꺾으시는 이시니 / 적들은 군대를 모을 수 없음이라,
그는 이마를 쪼개시어 복수를 행하시는 이시니 / 누구도 그 옆에 설 수 없음이라,
... ..
그는 온화함의 주, 지극히 감미로운 분이시니 / 사랑으로 지배하시도다,
성읍(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보다 그를 더 사랑하니 /
그들의 신보다 그에게 대하여 더 기뻐하노라,
남녀가 (서로) 앞다투어 그를 찬미하니 / 그가 왕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태중^{胎中}에서부터 (왕권을) 취하였으니 / 나신 후에도 그것을 염두에 두셨음이라,
그와 함께 태어난 이들은 많으나 / 그는 신이 내리신 독보적인 이라.

한편 『센와세레트 3 세 찬가』의 서두는 *jt.f t3wj m mꜥꜥ hrw* “진실된 목소리로서 그가 두 땅을 취하실 때”로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 이 찬가가 센와세레트 3 세가 즉위할 때 혹은 “세드 축제”(Sed Festival), 즉 재위 30 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왕실 의례를 통해 왕권을 갱신했을 때를 기념하여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찬가의 첫 10 연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센와세레트 3 세 찬가』 (Kahun, pl. 1, 1-5 및 7-10)

*hrw ntrj hrw / nbtj ntrj mswt / bjk-nbw hrw / nswt-bjt (hꜥ-k3w-rꜥ) / z3-rꜥ (z(j)-n-wsrt) | jt.f t3wj m mꜥꜥ
hrw j.nd-hr.k (hꜥ-k3w-rꜥ) | hrw.n ntrj hrw, mk t3, swsh t3sw.f d3jr h3swt m wrt(j)t.f / jnq t3wj m r-ꜥw ꜥwj.f
[rww] h3swt m r-ꜥwj.f / sm3m pdt(j)w nn sht ht, st šsr n< jth rwd*

... ..

⁷ 여기서 센와세레트 1세는 창조주-지배자와 동일시 된다. 『이집트 창세신화』에서 창조주의 특성은 *ky hrp.(w) hr h3t.f* “그보다 앞서 발현한” 다른 존재가 없는 모든 존재의 기원이며 *snnw* “버금가는 이,” 즉 동일한 신격과 권능을 가진 상대가 없는 최고신이다. 한편 *qjr shrw mnḥ wdt-mdw* “뛰어난 계획과 권능의 명령을 소유하신 이”는 창조주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두 속성, 즉 *sj3* “창조적 인식”과 *ḥw* “창조적 발화”를 의미한다. 이들은 창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각각 지칭하는데 무엇을 창조해야 할지를 미리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창조적 인식”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12번 참조.

[st] šsr mj jrr šhmt šhr.f h3w m h[mw] b3w.f / ns n hm.f rth hnt / t3zw.f sbh3 sttjw, w^c rnpw [h3] hr t3š.f /
tm rdj wrd mrwt.f / rdj sdr p^ct r šsp d3mw.f n qddw.sn / h3tj.f m mktj.sn

호루스 명 신성한 발현⁸의 소유자, **두 여신 명** 신성한 탄생의 소유자, **황금 호루스 명** 발현하신 이, **상하이집트의 왕(즉위명)** 카카우레(Khakaure: “태양신의 생명력이 현현하신 이”), **태양신의 아들(탄생명)** 센와세레트(Senwosret: “강건한 여신의 남자”), 진실된 목소리로서 그가 두 땅을 취하실 때,⁸ 문안 드리웁니다, 카카우레, 신성한 탄생의 소유자이신 우리의 호루스, 땅을 보호하시는 이, 그 국경을 넓히시는 이여, 그의 왕관으로 이방을 복속시키시고 그의 두 팔의 행위로 두 땅을 보듬어 안으시는 이여, 그의 행동으로 이방(의 적들)을 몰아내시고, 몽둥이로 치시지도 않고 활잡이들을 도륙하시는 이여, (5) 활시위를 당기시지도 않고 화살을 쏘시는 이여 ... 그의 권능을 모르는 수천의 무리를 쓰러뜨리실 때 세크메트 여신과 같이 활을 쏘시는 이여,⁹ 폐하의 혀가 상류(남부 누비아)를 제압하며 폐하의 언사¹⁰가 활잡이들[북부 사막의 유랑민족]을 도주하게 만드시오니, 독보적인 젊은이여,¹⁰ 그의 국경을 위해 싸우시는 이, 그의 신민¹⁰을 지지치 않게 하시는 이, 그의 심장이 그들의 보호자이므로 귀족들이 (근심 없이) 새벽까지 잠들 수 있게 하시는 이여.

찬가의 3연 “그의 왕관으로 이방을 복속시키시고 그의 두 팔의 행위로 두 땅을 보듬어 안으시는 이여”에서처럼 각 연의 전반부가 왕의 지혜로움과 전사로서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신민을 돌보는 자애로운 왕으로서의 면모가 강조된다. 이와 같이 중왕국 시대 왕의 찬가는 일반적으로 전반부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전사-파라오로서의 왕의 면모를 강조하는 반면, 후반부에서는 이집트인의 사랑을 받는 자애로운 군주로서의 면모가 강조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강력한 전사로서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신민들의 삶을 자기 일처럼 보살피는 따뜻한 보호자로서 묘사되는 구조는 특히 신전의 벽면에 묘사된 파라오의 모습과도 일치한다. 질서 잡힌 우주와 이집트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졌던 신전의 경우, 외벽은 태









⁸ 고대 이집트의 공식 왕명은 (1) hrw “호루스 명”; (2) nbty “두 여신 명”; (3) bjk-nbw “황금 호루스 명”; (4) nswt-bjt “상하이집트의 왕” = “즉위명”; (5) z3-r^c “태양신의 아들” = “탄생명” 등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m3^c hrw “진실된 목소리”(true of voice)는 이집트 신화에서 왕위 계승 분쟁과 관련한 신들의 재판에서 승소한 적법한 후계자를 지칭한다. 따라서 jt t3wj m m3^c hrw “진실된 목소리로서 두 땅을 취한다”는 말은 왕이 적법한 후계자로서 상하이집트의 왕권을 취했다는 의미이다.

⁹ 여기서 b3w “권능”(impressiveness)은 신들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 드러내 보이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말한다. 일례로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 아멘엠평트 3세(Amenemhat III: 기원전 1831-1786년)의 호루스 명은 ʕ3 b3w “위대한 권능을 소유한 이”였다. 한편, shmt “권세 있는 여인,” 즉 “세크메트” 여신은 태양신의 딸 중 한 명으로서 태양(빛)의 포악한 속성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여성의 몸에 암사자의 머리를 한 여신으로 표상되며 역병의 여신으로서의 신격도 보유하고 있다.

¹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대 이집트에서 재위 중인 왕에게는 ntr nfr “젊은 신,” 서거한 왕에게는 ntr ʕ3 “위대한 신”이라는 호칭이 각각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w^c rnpw “독보적인 젊은이”는 현재 재위 중인 센와세레트 3세를 지칭한다.


초부터 자체^{自在}했던 혼돈의 힘 혹은 이집트를 둘러싼 외적들의 위협이 상존하는 외부 세계와 마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주의 끝 혹은 이집트의 국경을 자연스럽게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외벽에 파라오가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 특히 파라오가 적의 머리를 잡고 곤봉으로 적의 관자놀이를 내리치려고 하는 이미지, 즉 “승리를 거둔 왕”(Victorious King)의 모티프를 예외 없이 새겨놓았다. 반면 질서 잡힌 우주 혹은 이집트 본토를 상징하는 신전 내벽에는 파라오가 최고위 제사장으로서 이집트의 신들과 대면하고 교류함으로써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이집트의 풍요를 보장받는 모티프들이 새겨졌다. 요컨대 이집트의 신-왕은 천상계의 신들과 지상계의 인간을 매개함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집트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1.3. 파라오의 충직한 신민들

파라오 바로 아래에는 명실공히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둘렀던  *ḥj* “재상”^{宰相} 혹은 “총리 대신”^{總理大臣} (vizier)이 있었는데 총리대신은 권력의 정점에서 왕을 보좌하며 중앙의 관료조직을 총괄했다. 지방의 행정조직은 현대의 ^州·^道·^縣 등에 해당하는 노모스의 수장(nomarch)이 담당했는데 고왕국 시대(기원전 2686-212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파견되던 이들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고 지방 호족화함으로써 이집트는 제 1 중간기(기원전 2160-2055년)라는 혼란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의 관리들은 정부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성공의 척도로 여겼으며 따라서 자신들의 자전적 기록에 본인이 일생 동안 맡은 모든 관직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 넣게 했다. 이렇게 분묘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분묘 내벽에 열거한 관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왕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가 척도가 되는) 명목상의 관직이며 두 번째는 실제로 업무가 부과되었던 행정관직이다. 명목상의 관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j)r(j)-p^c(t)* “귀족과 연관된 사람,” 즉 “귀족(의 일원)”이었으며 이 관직은 사실상 지배계층을 총칭하는 집합명사였다.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관직 중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ḥ3t(j)-^c* “팔[활동]의 앞에 있는 자,” 즉, “지도자” 혹은 “고관”;  *smr-w^ct(j)* “독보적인 동료,” 즉 “궁인”;  *ḥmt(j)-bjt(j)* “국새상서”^{國璽尙書} 등이 있다. 그러나 이집트의 관료 중 실제로 앞서 열거한 지위까지 승진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¹¹ 대부분 경우 관리들은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 앞에  *jmj-r* “감독관”(overseer)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는데 담당 업무에 따라  *jmj-r mš^c wr* “군대의 최고 감독관,” 즉 “장군”에서부터  *jmj-r š3w* “돼지 관리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의 관리를 망라했다.¹²

¹¹ 기원전 2000년경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왕국 시대 서사문학 작품 『시누헤 이야기』(Tale of Sinuhe)의 주인공은 자신의 (허구의) 자전적 기록 서두에 앞서 언급한 관직을 모두 열거한다(p.Berlin 3022, 1-2): *(j)r(j)-p^ct ḥ3t(j)-^c z3b ḥd-mr sp3[w]t jtj m 3w sttjw rh-nswt m3^c mry.f šms[w z3-n]ht dd.f* “귀족이자 고관, 아시아인들의 땅에 위치한 폐하의 영지 담당관, 폐하께서 총애하시는 왕의 진실된 지인^{知人}이자 종자,^{從者} 시누헤가 말한다.” 신왕국 시대의 필사본에는 이들 직함 뒤에 *ḥtmw-bjt* “왕의 국새상서”와 *smr w^ctj* “궁인”이 첨가되어 있다.

¹² 오늘날의 무슬림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인들과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돼지를 사육했으며 돼지고기를 먹었다. 일례로 고^古바벨 시대 함무라비(Hammurabi: 기원전 1792-1750년) 치세에 가장 오래된 바빌로니아어인 악카드어(Akkadian)로 작성된 『함무라비 법전』(Codex Hammurabi) 제 8 조는 다음과 같다(CH § 8, VI,57-64) *šum-ma a-wi-lum | lu GUD lu UDU lu ANŠE lu šahâm(ŠAH) | u3 lu gisMA3 | iš-ri-iq | šum-ma ša i-lim | šum-ma ša E2.GAL | A.RA2 30-*

그렇다면 명목적인 관직이든 실제 행정관직이든 이런저런 관직을 맡아 정부의 업무를 수행했던 이들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군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의 진솔한 속내나 정확한 실상은 영원히 알 수 없겠지만 올바른 사회생활을 통해 마아트를 실천하라는 것을 핵심 메시지로 하는  sb3yt “교훈서”(instruction) 장르에서 이들은 왕에 대하여 진정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음 세대에 조언한다.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 아멘엠타트 3세(Amenemhat III: 기원전 1831-1786) 치세의 관리였던 세헷에피브레(Sehetepibre)의 장례석비 뒷면에 새겨진 소위 『충신의 교훈서』(Loyalist Instruction)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귀족이 자신의 후세들에게 왕 - 여기서는 즉위명 니마아트레(Nima'atre)로 지칭된 아멘엠타트 3세 - 에게 성심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조언한다.

『충신의 교훈서』 (Lange & Schaefer, IV, pl. 40, 8-20)

h3t-^c m sb3yt jrt.n.f hr msw.f
dd.j wrt dj.j sdm.tn / dj.j rh.tn shr n nhḥ sšr ḥnh m m3^cw zbt ḥ^cw m ḥtp
dw3 nswt (nj-m3^ct-r^c) | ḥnh.(w) dt m hnw m hnw.tn / snsn hm.f m jbw.tn
sj3 pw jmj h3t(j)w / jw jrtj.f d^cr.sn ht nbt
r^c pw m33w m stwt.f / shdw(j) sw t3wj r jtn
sw3dw(j) sw r ḥ^cp 3 / mh.n.f t3wj m nht ḥnh
qbb fndw w3.fr nšn / ḥtp.fr tpr t3w
dd.f k3w n ntjwm šms.f / sdf(3).f mdd mt.n.f

šu | i-na-ad-di-in (= šumma awilum lu alpam lu immeram lu imēram lu šahām u lu eleppam išriq, šumma ša ilim šumma ša ekallim, adi 30-šu inaddin) “만일 한 자유인이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황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혹은 배 한 척을 훔쳤을 경우, 그 가치의 30 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돼지가 소나 양과 달리 기피 동물이 된 이유는 사막의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첫째, 초식동물인 소나 양과는 달리 돼지는 잡식성으로 인간이 먹는 것과 동일한 것을 먹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사막에서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둘째, 소나 양, 낙타는 장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력으로도 무리를 통솔할 수 있으나 돼지는 물을 많이 소비하고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 끊임 없이 이동해야 하는 환경에 부적합하다. 셋째, 소나 낙타의 고기는 건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도살 후에도 육포 등의 형태로 가공할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지방질과 병원균이 많아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도살 후 바로 소비하거나 버려야 한다. 넷째, 소나 양, 낙타는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여분의 젖을 치즈 등으로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돼지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젖이 없다. 다섯째, 소나 낙타의 가죽, 양의 털인 양모 등은 유목 생활에 유용한 천막이나 옷감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으나 인간의 피부와 유사한 돼지의 가죽은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여섯째, 소나 낙타와 같은 초식동물의 배설물은 건조 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잡식성인 돼지의 배설물은 잘 마르지 않고 금세 썩어버리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돼지고기는 처음 히브리인들에 의해 부정한 동물로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제 1 성서』 「레위기」 11:7-8; 「신명기」 14:8):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이슬람 율법에서도 금지되었다(『꾸란』 2:173):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 또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알라는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k3 pw nswt / h3w pw r:f / shpr:f pw wnn(j):f
hnmw pw n h^cw nb / wttw shpr rhyt
b3stt pw hwt t3wj / jw dw3 sw r nhw ^c:f
shmt pw r th wdt:f / jw sf3:f r hr(j) sm3w
^ch3 hr rn:f tjwr hr ^cnh:f / šw.tn m zp n b(3)gsw
jw mr.n nswt r jm3hy / nn jz n sbj hr hm:f / jw h3t:f m qm(3) n mw
jr.tn nn wd3 h^cw.tn / gm.tn st n dt

후손을 위해 지은 교훈서의 서두.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 너희는 새겨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반복성의 섭리와 올바르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과 일생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니 마아트레 왕 - 영생하소서 - 을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경배하고 폐하를 너희의 심장에 품으라.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심장에 깃든 창조적 인식[시아]이시니 그의 눈은 모든 신민을 살피시니라.¹³ 그분은 그 빛으로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태양이시니 그분께서 두 땅을 비추심은 태양원반보다 더 밝도다. 그분께서는 큰 범람보다 더 풍요롭게 하시니 그분께서는 두 땅을 생명력으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분란^{紛亂}에서 떨어져계실 때 모든 코들이 시원해지고 그분께서 만족하셔야 숨을 쉴 수 있음이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그분께서는 주시고 그분의 길에 머무는 이들을 먹이시니라. 왕은 카(ka)이시니 그분의 입은 풍요이며 그분께서 부양하시는 이들만이 존재하게 되리라. 그분은 모든 육신을 창조하시는 크눔이시니 신민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요, 그분은 두 땅을 수호하시는 바스테트 여신이시니 그분을 숭배하는 이들을 그의 팔이 보호하시고, 그분은 그의 명령을 어기시는 자들에 대적하시는 세크메트 여신이시니 그분께서 혐오하시는 이는 곤경에 처하리라.¹⁴ 그분의 존명^{尊名}을 위해 싸우라. 그분의 맹세를 존중하라. 방종한 일을 행하지 말라. 왕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홀륭해질 것이며 폐하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없고 그의 시신은 물에 던져지느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너희 몸은 온전할 것이며 너희는 이것이 영원한 동일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¹⁵

이 교훈서에서 왕은 지상의 창조주로 묘사된다. 이집트인들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요


¹³ 앞서 언급한 것처럼 *sj3* “창조적 인식”은 창조주가 창조할 대상을 인식하고 기획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왕은 창조주가 가진 예민한 인식능력, 즉 통찰력을 통해 모든 신민을 날카롭게 파악하는 군주로 묘사된다.

¹⁴ 이집트 최남단 엘레판틴(Elephantine)의 주신 크눔(Khnum)은 도공의 녹로^{鑄鑪}에서 질 좋은 나일강의 흙으로 사람과 그의 생명력(life source)을 빚어내는 신이다. 이집트 북부 부바스티스(Bubastis)의 주신인 바스테트(Bastet) 여신은 사람의 몸에 고양이 얼굴을 한 여성 혹은 고양이로 표상되며 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Sekhmet)와 마찬가지로 태양신과 파라오의 적들을 압살하고 그들의 충실한 신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¹⁵ 저자는 『교훈서』의 서두에 *shr n nh3* “영원한 반복성(Eternal Recurrence)의 섭리”를, 말미에 *dt* “영원한 동일성(Eternal Sameness)의 법칙”을 언급함으로써 영원한 동일성, 즉 영원불변의 법칙을 기반으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영원한 반복성, 즉 영겁회귀의 주기가 반복된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시간관을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다.

소, 즉 햇빛(빛과 온기)과 범람(농업 및 생활용수)에 있어 파라오는 태양보다 밝게 세상을 비추며 나일 강의 주기적인 범람보다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충직한 신민으로서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뜻을 어기거나 그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무덤도 세울 수 없고 시신도 미라로 처리되지 못한 채 강에 버려지는 최악의 상태, 즉 존재의 완전한 파멸이다. 『교훈서』의 저자 같은 지배계층이 이처럼 파라오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파라오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전제군주제 안에서만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또 지속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이들은 파라오와 정치적 운명 공동체였던 것이다.

1.4. 파라오의 여인들

파라오의 통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관리들과 달리 관직이 없는 평민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집합명사  *rhwt* “신민”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에는 농부·장인·육체 노동자 등이 포함되었다. 고대 이집트의 평민들은 대개 일부일처제에 따라 한 명의 아내와 일생을 같이했다.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교훈서인 『프타호텝의 교훈서』(Instruction of Ptahhotep) 제 20번 금언(maxim)은 아내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다(Žába 325-332 = p.Prisse 10,8-10): *jr jqr.k grg.k pr.k / mr.k hjmt.k m hn / mh ht.s hbs s3.s / phrt pw nt hf.w.s mrht / s3w jb.s tr n wnn.k / 3h pw 3ht n nb.s / jm.k wd s(j) ryt* “그대가 능력이 있다면 가정을 세우라. 그대 아내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녀의 배를 채우고 등을 (옷으로) 감싸라. 그녀의 몸에는 연고가 약이 되리라.¹⁶ 그대가 존재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을 행복하게 하라. 그녀는 주인에게 유용한 발이니 그녀에 대하여 (함부로 이혼을)(?) 결정하지 말라.”

평민들이 일부다처제를 따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상속에 대한 문제와 함께 특히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의 경우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가능했으며 사회적인 평판 측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반면 근친혼은 다른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왕실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들 평민과 달리 파라오는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근친혼도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파라오는 많은 왕녀를 거느림으로써 왕위를 계승할 남성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는 부를 과시할 수 있었다. 한편 왕비들은 엄격한 서열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이들 중 약 1-3명만이 *hjmt-nswt wrt* “왕의 위대한 아내,” 즉 “정비”^{正妃} (Chief Queen) 혹은 “대왕비”^{大王妃} (Great Royal Wife)로 불렸고 나머지는 모두 후궁의 지위에 머물렀다. 정비는 통상 왕족(대개는 이복 누이)이거나 유력한 귀족가문 출신(대개는 강력한 지방호족)이었으며 왕은 이들 간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다. 왕은 또한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의 왕녀들과도 결혼했는데 이와 같은 외교적인 정략결혼을 통해 이집트 왕실로 편입된 외국의 왕녀들은 대부분 후궁의 지위에 만족해야 했다. 아울러 새 왕조가 수립되는 경우, 새 왕조의 시조가

¹⁶ 이집트와 같이 건조한 곳에서는 주기적으로 기름이나 연고를 몸에 발라주지 않으면 피부가 튼다. 따라서 *phrt pw nt hf.w.s mrht* “그녀의 몸에는 연고가 약이 되리라”는 말은 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와 함께 기름·연고 등과 같은 생활용품들 통해 아내를 정성을 다해 보살피라는 말이다.

되는 왕은 왕가의 직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어머니가 다른 전대 파라오의 딸)인 이복 누이와 결혼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왕국 시대 제 4 왕조 스네페루(Sneferu: 기원전 2613-2494년)의 아내이자 쿠푸(Khufu: 기원전 2589-2566년)의 어머니였던 헤텡헤레스 1세(Hetepheres I)와 같이 *z3t nswt* “왕의 딸”과 *hjm t nswt* “왕의 아내,” 그리고 *mjw t nswt* “왕의 어머니” 호칭을 모두 보유한 왕실 귀부인이 여러 명 발견되는데 이들이 바로 왕의 딸로 태어나 (이복) 형제인 왕과 결혼하여 왕의 후계자를 생산한 정비들이다. 요컨대 이들은 왕실 구성원 간의 결혼을 통해 정비의 지위에 오른 것이다. 아울러 왕이 강력한 지방호족을 정비로 맞이한 역사적 사례로는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의 아멘호텝 3세(Amenhotep III: 기원전 1390-1352년)가 치세 2년 상이집트의 아비도스(Abydos) 근처에 위치한 아크민(Akhmin; 아랍어: أخميم)의 유력 가문 출신인 티예(Tiye)와 결혼한 것을 들 수 있다.¹⁷ 일부 학자들은 티예 가문이 아멘호텝 3세 치세 초기에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 18 왕조 후반에 아멘호텝 3세-티예 부부의 거상을 비롯한 다양한 왕실의 조각상이 아크민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영향력이 아멘호텝 3세 치세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것을 방증한다(Bryan, 2000: 267-268).

기원전 16세기 이후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소위 “강대국 클럽”(Club of the Great Powers)이라 불렸던 초기 제국들의 네트워크와 주변부 소국들의 복잡한 외교적 합종연횡(合從連橫)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해 전역의 제 1 차 세계화가 진행되었다(Van De Mieroop, 2007: 129-148). 이 과정에서 왕실 간의 국제결혼은 강대국 간의 결속과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수단 중 하나였다. 이집트의 경우 대대적인 원정을 통한 영토확장이 마무리된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의 투트모세 4세(Thutmose IV: 기원전 1400-1390년) 이후 왕실 간의 결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수립하는 외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른 국가 간 정략결혼은 아멘호텝 3세 치세에 절정을 맞은 후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Ramesses II: 기원전 1279-1213년) 치세까지 이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교적인 정략결혼을 통해 이집트 왕실로 편입된 외국의 왕녀들은 대부분 후궁의 지위에 머물렀으나 정비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그 좋은 예는 시리아 북부에 위치했던 후르 족(Hurrians)의 미탄니(Mittani) 왕국에서 이집트 왕가로 출가한 타두헤파(Tadukhepa)였다. 아멘호텝 3세는 이미 미탄니의 왕 슛타르나 2세(Shuttarna II: 기원전 1380-1840년경)의 딸 길루헤파(Gilukhepa)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그녀에게 정비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아멘호텝 3세는 미탄니의 왕녀 길루헤파와의 결혼을 기념하는 신성갑충(神聖甲蟲) 모양의 인장형(印章形) 기념물(그림 1)을 배포하였는데(Wilkinson, 2008: 40-45) 그 아랫면에 새겨진 텍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BM EA 68507, 7-11): *bj3yt jnyt <n> hm.f nḥ.(w)-(w)d3.(w)-s(nb.w) / z3t wr n nhrn3 s3tjrn3 kyrgyp3 tpw n hnr(t).s st 317* “경이로

¹⁷ 티예(Tiye)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유야(Yuya)와 투야(Thuya)는 아멘호텝 3세(기원전 1390-1352년)의 배려로 신왕국 시대의 왕실전용 묘역인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에 자신들의 분묘(KV 46)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들의 분묘는 1905년 미국의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테오도르 데이비스(Theodore Davis: 1838-1915년)에 의해 발견되었다. 1922년 영국의 하워드 카터(Howard Carter: 1874-1939년)에 의해 제 19 왕조 투탄카멘(Tutankhamun: 기원전 1336-1327년)의 왕묘(KV 62)가 발견되기 전까지 유야·투야의 분묘는 왕가의 계곡에서 발견된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분묘였다.

운 사건이 폐하[아멘호텝 3세] - 장수·번영·강성하소서 - 께 일어났으니 이는 궁녀 중 가장 아름다운 317명(의 시녀들)과 함께 나하린[미탄니]의 왕 슛타르나의 딸 길루해파(가 이집트로 온 것이)라.” 자신의 누이가 이집트의 정비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던 슛타르나 2세의 아들 투쉬라타(Tushratta 기원전 1380-1840년경)는 파라오와의 결혼계약 협상에서 자신의 딸을 정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엄청난 양의 지참금과 궁녀를 선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려 했다.¹⁸

외국의 왕녀가 이집트의 정비가 된 또 다른 사례는 66년 간을 통치하며 수많은 왕비들 사이에서 최소 79명의 아들과 59명의 딸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 치세에 일어났다. 람세스 2세에게는 3명의 정비가 있었는데 이들 중 이세트노프리트 1세(Isetnofret I)와 네페르타리(Nefertari)는 이집트인이었지만 마지막 정비 마아트-호르-네페루-레(Maathorneferure)는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아나톨리아(Anatolia)에 위치한 히타이트(Hittite) 제국의 왕녀였다. 람세스 2세는 치세 2년에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히타이트의 무와탈리 1세(Muwatalli I: 기원전 1295-1272년)와 시리아 북부의 도시국가 카데쉬(Kadesh)에서 격돌했다. 이후 치세 21년 하투실리 3세(Hattusili III: 기원전 1267-1237년)와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며 치세 34년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하투실리 3세의 장녀와 람세스 2세 사이의 국제결혼이 성사되었다(Kitchen, 1982: 83-89).¹⁹

기원전 1246년 히타이트를 출발한 신부는 하투실리 3세의 왕비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푸두해파

¹⁸ 투트모세 4세(기원전 1400-1390년) 역시 미탄니의 왕녀와 국제결혼을 했으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아멘호텝 3세(기원전 1390-1352년)는 미탄니의 왕녀 2명 이외에도 시리아의 왕녀 2명, 바빌로니아의 왕녀 2명, 아르자와(Arzawa: 현재의 터키 서부 소아시아 부근에 존재했던 왕국) 왕녀 1명 등 총 7명의 왕비를 해외로부터 맞았다. 왕실 간의 정략결혼이 외교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던 “강대국 클럽”의 시기에도 이집트의 왕녀가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는 경우는 없었다. 바빌론의 왕 카다쉬만-엔릴(Kadashman-Enlil: 기원전 1374-1360년경)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멘호텝 3세는 역사적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집트 왕녀의 국제결혼 가능성을 일축했다(『아마르나 외교서신』 EA 4,4-9): [ap-pu-na-m]a at-ta ŠEŠ-ia ki-i la na-d[a-ni-im-ma] | [a]-na DUMU.MUNUS-ka a-na a-ha-zi ki-i aš3-pu-ra-[ak-ku tal-ta-ap-ra] | um-ma-a ul-tu4 pa-na DUMU.MUNUS LUGAL ša KUR mi-iš-[ri-i] | a-na ma-am-ma ul in-na-ad-di-in am-mi-ni | [a in-na-ad-di-in] | LUGL at-ta ki-i ŠA3-ka te-ep-[pu-uš] | šum-ma ta-at-ta-di-in ma-an-nu mi-na-a i-[qa-ab-bi] (= [appūnam]a attā ahuia kī lā nad[ānimma] [a]na māratka ana ahāzi kī ašpura[kku taltapra] umma ultu pana mārat šarri ša māt miš[rī] ana mamma ul innaddin ammīni | [ā innaddin] šarru attā kī libbika tep[puš] šumma tattadin mannu mīna i[qabbi]) “[더구나] 나의 형제인 그대[아멘호텝 3세]는 내[카다쉬만-엔릴]가 그대의 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사안과 관련한 서신을 그대에게 보냈을 때 (딸을)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이렇게 답신하셨네]. ‘고래^{古來}로 이집트 왕의 딸이 (누군가에게) 주어진 적은 없었네.’ 왜 [아무도 주어진다면] 안 되는가? 그대는 왕이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네. 그대가 (딸을) 주고자 한다면 누가 무어라 [할 수 있겠는가]?” 한편 타두해파가 이집트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멘호텝 3세가 사망하였으며 이후 그녀는 아멘호텝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2-1336년)의 왕비가 되었다.

¹⁹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년)는 하투실리 3세(기원전 1267-1237년)와 왕비 푸두해파(Pudukhepa)에게 친서를 보냈으며 당시 파라오의 정비 네페르타리 역시 히타이트의 왕비에게 친서를 보냈다. 한편 람세스 2세는 이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투실리 3세의 차녀와 결혼하였으며 튄할리아 4세(Tudkhalia IV: 기원전 1237-1209년)의 딸과도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Tyldesley, 2006: 159).

(Pudukhepa)와 함께 시리아 남부까지 육로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이집트 사절단의 호위를 받으며 남하하여 기원전 1245년 당시 수도였던 피-람세스(Pi-Ramesses)에 도착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의 신부에게 *m33t-ḥrw-nfrw-r* “마아트-호르-네페루-레,” 즉 “호루스, 태양신의 완벽함을 보시는 이”라는 이집트식 이름²⁰과 정비의 지위를 부여했다(KRI II, 247,10-248,9 = I,33-35; 253,13-15; 254,7-12): *jw.jn.tw r sndm jb n ḥm.f m dd / mj.k rdj.n p3 wr ʿ3 n ḥt3 jn.tw z3t.f wrt ḥr jnw ʿš3w m ḥt nb ... t3 {z3t.f wrt n} wr n ḥt3 ḥnʿ wrw ʿ3[y] n t3 n ḥt3 ḥr.sn / sn.sn dww ʿš3w g3wt qsnt / ph.sn t3š n ḥm.f / mj w[d3] mšʿw wrw r šzp.w ... [ʿḥʿ.n m33 st] ḥm.f m nfrt ḥr ... [wn.jn.s nfr].tj ḥr jb n ḥm.f / mr.n.f st r ḥt nbt “그러자 폐하께 전언하여 이르기를, ‘보소서, 하티[히타이트]의 대왕이 그의 장녀를 수많은 조공과 함께 보내었사옵나니. ... 하티의 대왕의 [장녀]는 하티 땅의 많은 고관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산과 험한 길을 통과하여 폐하의 국경에 도달하였사옵나니. (그러니) 군대와 고관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맞이하소서.’ ... [그리하여] 폐하께서는 [그녀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것을 [보셨다]. ... [그녀는] 폐하의 마음에 [흡족하였으며] 폐하는 그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셨다.”*

끝으로 이집트 왕실이 근친혼을 행한 이유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반인들에게는 금기로 여겨졌던 근친혼이 왕실에서만은 허용된 이유는 왕실의 직계혈통과 왕실재산을 보호한다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으나 「이집트 창세신화」와 「오시리스 신화」(Osirian Cycle)에서 남신들이 완벽한 혹은 유일한 배우자인 누이들과 결혼한다는 신화적 선례(mythological precedenc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왕실의 근친혼은 대개 이복 남매 사이에서 행해졌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투트모세 1세(Thutmose I: 기원전 1504-1492년)의 아들 투트모세 2세(Thutmose II: 기원전 1492-1479년)가 아버지인 것과 어머니는 다른 이복 누이 하트셉수트(Hatshepsut: 기원전 1473-1458년)를 정비로 맞이한 경우와, 제 19 왕조의 “소년왕” 투탄카멘(Tutankhamun: 기원전 1336-1327년)이 이복 누나인 앙케센아문(Ankhesenamun)과 결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신왕국 시대 왕들은 자신의 친딸과 결혼하기도 했는데 제 18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텝 3세(기원전 1390-1352년)는 장녀 시타문(Sitamon)과 결혼했으며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년) 또한 자신의 딸인 빈타나트 1세(Bintanath I)・메리타문(Meritamun)・네베트타위(Nebttawi)와 결혼했다. (결혼 후 이들에게는 모두 정비의 지위가 부여되었다.) 근친혼에 대한 현대의 부정적인 인식을 의식한 일부 이집트학자들은 이들의 결혼이 상징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복) 누이 혹은 친딸과의 결혼에서 실제로 자녀가 탄생하는 경우도 흔했다. 일례로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2-1336년)의 딸 메리타텐(Meritaten)은 그의 자녀를 낳다 분만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인들에게는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왕실 근친혼이 이집트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에 대한 신화적 선례가 존재하고 왕은 다른 모든 인간과는 구별되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정비와 후궁들, 그들을 돌보는 시녀들과 같은 왕실 여인들, 그리고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파라오의 아들・딸들은 왕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왕의 사저 주변에 이들 공동체의 생활구역이 조성되었다. 고왕국 시대(기원전 2686-2125년)와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에는 이들의 거

²⁰ 그녀의 이름은 고왕국 시대(기원전 2686-2125년)의 왕비들이 즐겨 사용했던 호칭 *m33t ḥrw stš* “호루스와 세트를 보시는 이”를 상기시킨다. 여기서 호루스와 세트는 신성한 왕권의 담지자인 왕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데(Griffiths, 1980: 6) 왕비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처를 *jpt nswt* “왕실 사저”^{私邸}(Royal Apartments)로 칭했다.²¹ 이와 같은 왕실 여인들을 위한 사저는 왕궁의 뜰을 따라 왕의 거처 근처에 조성되었는데 그 규모와 시설은 비교적 수수한 수준이었다. 그 이유는 중왕국 시대까지는 왕비들을 비롯한 왕녀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파라오가 이집트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통치했기 때문이다. 왕실 여인들 역시 왕과 함께 이집트 전역을 순회했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 역시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기적인 거주지로 조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 초반부터 왕실 여인들의 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 출신의 왕비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국내외 시녀들과 왕자·공주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의 규모가 전례 없이 비대해졌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왕실 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순회통치 기간 중 이들 모두 대동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제 18 왕조 투트모세 3세(Thutmose III: 기원전 1479-1425) 치세부터 중부 이집트의 파이움(Fayum) 호수 근처의 메디넷 엘-구랍(Medinet el-Ghurab)에 왕실 여성들을 위한 영구적인 거처가 조성되었는데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지 안에는 열주실^{列柱室} 양식으로 건립된 홀과 다수의 거실·진흙벽돌로 지은 주택·소규모 창고·소규모 신전 등이 조성되었으며 근처 사막지대에는 이들을 위한 공동묘역이 만들어졌다(Yoyotte, 2008: 85-89).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기원전 1279-1213년) 치세부터 이들 거처는 *pr hnrt* “통제/금지된 영지”로 불렸는데 *hnrt* “통제된 곳”이라는 단어가 동사 *hnr* “억제하다”·“제약하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禁”이 “비밀”·“감옥” 등과 함께 “궁궐”을 의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금제^{禁制}의 공간”으로서의 왕실 여인들의 거처, 즉 왕실 사저는 내부의 구성원들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외부의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²² (그러나 왕실 사저의 행정과 경제활동은 환관들이 아니라 기혼의 남성 관리들이 담당하였다.) 또한 왕실 사저는 사실 주변 지역의 광활한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농들을 채용했던 지역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렇다면 왕실 여인들을 위한 영구적인 왕실 사저를 전통적인 행정 수도인 북부의 멤피스나 종교 중심지인 남부의 테베에서 멀리 떨어진 중부 이집트에 설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왕녀들이 번잡한 궁정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절한 배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국정에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왕실 구성원들을 왕위의 계승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왕실 내부의 분란 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더 타

²¹ 서구에서는 고대 이집트 왕녀들의 거처를 여전히 “왕실 하렘”(royal harem)으로 지칭하고 있으나 이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터키식 내전^{內殿}(seraglio)에 투사된 서구의 관음증적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서 “하렘”은 술탄(sultan) 이외의 남자들은 출입할 수 없는 금남의 장소로서 온갖 성적 판타지가 허용되는 에로티시즘의 공간으로 묘사되는데(이주헌, 2009: 213; 2011: 193-194) 이는 고대 이집트의 왕녀들의 생활공간과는 그 성격과 기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²² 여성들의 생활공간을 가족이 아닌 남성이 침입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규칙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효했다. 일례로 고대 이집트의 주요 교훈서 중 하나인 『프타호텝의 교훈서』의 제 17번 금언은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Žába 277-297 = p.Prisse 9,7-13): *jr mr.k sw3h hnms m hnw q.k r.f m nb m sn m hnms r pw r bw nb q.k jm / h3.t(j) m tkn m hjmwt / nj nfr.n bw jrrw st jm* “그대가 드나드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주인으로서, 형제로서 혹은 친구로서 우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곳의)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을 삼가라. 그런 일이 행해지는 곳은 결코 좋을 수 없다.”

당할 것이다. 왕녀들을 위한 영구적인 거처가 마련되면서 파라오가 선택한 소수의 왕비들만이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는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왕실 사저에 남겨진 후궁들은 평온하지만 무미건조한 삶에 만족하든가 다시 중앙정계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야심과 포부에 찬 왕비와 후궁들은 후자를 택했는데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금제의 공간이 대담한 반역의 온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길루헤파와의 결혼을 기념하는 신성갑충 모양의 인장형 기념물²³

동석(東石, steatite)에 유약을 바른 후 구운 신성갑충 모양의 인장형 기념물 혹은 스카라베(Scarab)의 밑면. 미탄니의 왕녀 길루헤파가 아멘호텝 3 세의 궁정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11 행의 텍스트가 성각문자로 새겨져 있다. (높이: 2.80 센티미터; 길이: 7.57 센티미터; 너비: 5.68 센티미터)

²³ 출처: 영국박물관 웹사이트(https://www.britishmuseum.org/collection/object/Y_EA68507).

제 2 부. 반역과 음모의 기록

2.1. 국왕살해의 신화적 선례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창세신화인 「헬리오폴리스 창세신화」(Heliopolitan Cosmology) 따르면 창조주  (*jtm* “아툼”(Atum)이 스스로를 발현  (evolution)하여 우주가 창조된 후 하늘의 여신  *nwt* “누트”(Nut)와 땅의 신  *gbb* “게브”(Geb) 사이에서  *jsjrt* > *wsjr* “오시리스”(Osiris) •  *stš* “세트”(Seth) 형제와  *jst* “이시스”(Isis) •  *nbt-ḥwt* “네프티스”(Nephthys) 자매가 태어났다.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부부가 되었으며 세트는 네프티스와 짝을 이루었다. 이상적인 남성적 생식력과, 재생 • 부활의 권능을 상징하는 남신이자 아버지 게브로부터 적법한 왕위를 계승한 오시리스는 완벽한 통치자로서 선정을 베풀어 지상에 마아트를 구현시켰다. 그러나 평소 오시리스를 시기한 세트는 오시리스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다. 세트는 오시리스와는 반대되는 남성의 무분별한 성욕과 불임 • 불화와 혼돈을 체화한 남신이었다. 남편이 살해당하자 이상적인 여성적 생식력과 모성애를 상징하는 이시스는 그녀의 누이 네프티스와 함께 세트가 유기한 오시리스의 시신을 찾아 나선다. 솔개(kite)로 변신한 두 여신은 오시리스의 시신을 수습하고 이시스는 자신이 가진 강력한 주술의 힘으로 죽은 오시리스를 부활시켜 오시리스의 뒤를 이을 적법한 후계자  *ḥrw* “호루스”(Horus)를 수태한다.

『피라미드 텍스트』 532번 주문(PT 1255c-1256b)

j jst / j nbt-ḥwt
wᶜt.sn m jmnt / wᶜt.sn m jḳbt
wᶜt.sn m ḥḳt wᶜt.sn m ḏrt
gm.n.sn jsjrt ndj.n sw sn.f stš r t3 m ndjt

이시스가 왔도다. 네프티스가 왔도다.


그들 중 하나는 서쪽에서, 그들 중 (다른) 하나는 동쪽에서

그들 중 하나는 날카롭게 우는 새로서, 그들 중 (다른) 하나는 솔개로서

그들이 오시리스를 찾은 후에, 그의 동생 세트가 그들 네디트로 던진 후에²⁴

²⁴ 여기서 *ndjt* “네디트”(Nedit)는 동사 *ndj* “던지다”에서 파생된 지명으로 (오시리스의 시신이) “던져진 곳,” 즉 (오시리스의 시신이) “유기된 곳”을 의미한다. 이 역시 주문과 찬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유희(wordplay) 중 하나이다. 네디트는 가상의 장소로서 실존하는 지명이 아니다. 아울러 이 주문에서 볼 수 있듯 세트에 의한 오시리스의 살해와 같이 마아트를 훼손할 수 있는 사건은 왕조시대(기원전 3000-332년) 내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오시리스 살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플루타르코스(Πλούταρχος: 46-119년)가 당시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던 이시스 신앙의 추종자들에게 오시리스 신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당시까지 알려진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관한 신화를 채집 • 정리 • 분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집필한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하여』(De Iside et Osiride)가 출간된 이후이다.

이시스와의 결합 후 오시리스는 최초의 미라로 방부처리 되고 명계^{冥界}로 내려가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된다. 한편 호루스를 출산한 이시스는 세트 몰래 아크비트(Akhbit)라는 북부 이집트의 습지에서 호루스를 키운다. 마침내 호루스가 성장하자 이시스는 호루스를 세트와 겨루게 하고 삼촌과 조카 사이의 왕권 다툼은 마침내 호루스의 승리로 귀결된다. 이후 호루스는 이집트의 신들 앞에서 오시리스의 적법한 계승자로 인정받는다.

오시리스 신화는 반인반신인 신-왕이 죽는 이유와 그에 따른 신성한 왕권(divine kingship)의 계승원칙을 다룬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지상의 신인 왕이 죽는 이유는 -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요컨대 노환에 의한 자연사라 할지라도 - 오시리스와 마찬가지로 세트에 의해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트는 노화·병사·전사·시해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파라오가 대면할 수 있는 모든 사인^{死因}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오시리스 신화」라는 신화적 선례에 따르면 모든 왕의 죽음은 마아트의 대척점에 있는  *jsft* “이제페트,” 즉 “부정”·“불의”·“불공정”·“협잡”·“혼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저지른 살인이다(Assmann 2005: 64-73). 여기서 왕의 죽음은 마아트에 대한 이제페트의 일시적 승리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제페트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창조주가 세워놓은 섭리에 따라 마아트에 의해 운명적으로 타도·제거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왕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이제페트의 소멸과 마아트의 승리는 적법한 왕위 후계자에 의한 신성한 왕권의 계승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이 또한 「오시리스 신화」라는 신화적 선례로서 충분히 설명되고 정당화 될 수 있다.

「오시리스 신화」라는 신화적 선례에 따라 파라오는 사후 오시리스가 되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명계를 지배하는 왕이 된다. 한편 선왕의 뒤를 잇는 새로운 왕은 호루스의 화신이 되어 공석이 된 왕위의 적법한 후계자가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오시리스 신화」는 이처럼 왕의 죽음·매장과 아들의 적법한 계승·즉위에 대한 신화적 근거를 제시하며 여기서 호루스는 세대 간의 왕권 승계를 완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끝으로 호루스는 우주적 영역·왕권의 영역·장례의 영역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주적 영역에서 호루스는 장성하여 불의를 상징하는 찬탈자 세트로부터 이집트의 왕권을 되찾아옴으로써 지상에 신적 질서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위태로운 탄생과 험난한 유년기를 거쳐 신들에 의한 정통성의 인정과 영광스러운 즉위에 이르는 호루스 신화의 전 과정은 왕권의 영역에서 적법한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신화적 근거를 제공해준다.²⁵ 장례의 영역에서 신성한 후계자의 탄생은 세대 간의 계승을 통한 생명과 왕실의 존속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계승 과정은 죽음에서 삶으로의 역동적인 이행을 상징한다. 이때 죽은 왕은 오시리스와 동일시 되어 그와 동일한 부활과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 한편, 새로운 왕은 호루스가 되어 선왕의 장례와 매장을 담당하고 -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he who buries, inherits* “상주^{喪主}가 계승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내세의 위협으로부터 선왕을 보호하는 등 아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²⁵ 호루스는 고대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유년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신이다. 호루스의 유년기는 결코 평화롭거나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세트 혹은 전갈이나 뱀 등 그가 보낸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끊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시기였다. 전설에 따르면 이시스는 뱀이나 전갈에 물려 생사의 기로에 선 호루스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주술을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호의적인 신들에게 호소하였는데 이시스의 이와 같은 노력은 위험한 생물이나 질병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주술행위에 신화적 근거를 제공한다.

왕의 시해사건은 어떻게 보면 「오시리스 신화」가 현실에서 실현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왕이 사망하고 다음 후계자가 왕이 되는 상궐^{常軌}을 벗어난,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식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참한 사건이므로 왕의 시해사건 자체가 「오시리스 신화」로 설명되는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모든 왕의 죽음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새로운 적법한 후계자가 마아트^{Maat}의 수호자로 등장하여 악의 일시적 승리를 무화하고 새롭고 영구적인 질서를 보증한다는 사실이다

2.2. 첫 번째 사례: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페피 1세

왕의 시해음모와 관련한 가장 오래된 언급은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페피 1세(Pepy I: 기원전 2321-2287 년) 치세에 작성된 한 관리의 자전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피 1 세는 제 6 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였다. 당시는 이미 호족화된 지방관리들이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왕국 시대의 말기에 구체화되는 쇠퇴의 전조가 포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궁정 내부의 암투 혹은 시해음모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텍스트가 작성되었는데 바로 왕의 측근이었던 궁정관리 웨니(Weni)가 아비도스(Abydos)에 위치한 자신의 분묘에 새겨놓은 자전적 기록이다.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으며 고속 승진하면서 어떻게 최측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자전적 기록에서 웨니는 왕비가 연루된 모종의 음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웨니의 자전적 기록』 (Urk. I, 100,13-101,17)

*šn.t(j) (j)ht m jp3t-(n)swt r hjmt-(n)swt wrt-hts m sšt3
rdj hm.f h3y.(j) r sdm w^c.k(j)
nj wnt t3jtj-z3b-t3 nb sr nb jm wp-(j)r.(j) w^c.k(j)
n jqr.(j) n w3b.(j) hr jb n hm.f n mh hm.f jb.f jm.(j)
jnk jr m zh3 w^c.k(j) hn^c z3b-r-nhn w^c.(j)
st j3wt.(j) m (j)m(j)-r-hnt-š-pr-^c3
nj zp p3 mrwt(j).(j) sdm sšt3 n jp3t-(n)swt dr b3h wp-r rdjt hm.f sdm.(j)
n jqr.(j) hr jb n hm.f r sr.f nb r s^ch.f nb r b3k.f nb*

왕의 사저에서 왕비 거룩한 홀^{ḥwt}을 쥐신 이[웨레트헤테스]에 대한 심문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폐하께서 (이 사건을) 심리하도록 나를 홀로 내려 보내시니 나를 제외하고 거기에는 (다른) 어떤 추밀사^{樞密使}-총리대신도, (다른) 어떤 관리도 없었는데 (이는) 내가 탁월했고 폐하의 마음에 내가 깊이 자리잡았으며 폐하의 마음에 내가 흡족했기 때문이다. (비록) 내 관직이 왕실 소작인 담당관에 불과했으나 한 명의 고관-네켄[히에라콘폴리스]의 대변인과 함께 홀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폐하께서 내게 심문하게 하신 일을 제외하면 이전에 나와 같은 이가 왕의 사저의 비밀을 심리한 전례는 없었는데 (이는) 폐하의 마음에 (다른) 모든 관리, (다른) 모든 궁인, (다른) 모든 일꾼들보다 내가 (더) 탁월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웨니의 자전적 기록은 왕의 총애와 왕실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왕비의 음모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와 관련하여 왕이 자신에게 보인 두터운 신임이나 자신의 예외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된 이런 언급 속에 드러나는 사안의 중대함으로 볼 때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왕이 연루된 왕의 시해음모 혹은 간통과 같은 이에 준하는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

본문에서 언급된 *wrt-hts* “거룩한 홀을 쥐신 이” 혹은 “웨레트헤레스”(Weretheres)는 왕비의 본명이 아니라 취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호칭 혹은 가명으로 추정된다.²⁶ 페피 1 세는 수도 멤피스 서안의 사카라(Saqqara) 남부에 조성한 자신의 피라미드에 왕비들을 위한 소규모 위성 피라미드 6 기를 건설했는데 이들 피라미드는 넵웨네트(Nebwenet) • 이네네크-인티(Inenek-Inti) • 메리테테스(Meritetic) • 앙크네스-메리레 2 세(Ankhnes-Meryre II) • 앙크네스-메리레 3 세(Ankhnes-Meryre III), 그리고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왕의 장녀” 혹은 또 다른 왕비 네제프테트(Nedjeftet)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앙크네스-메리레 2 세와 앙크네스-메리레 3 세는 모두 아비도스의 유력한 호족 쿠이(Khui)의 딸들이었는데 페피 1 세는 중앙 왕실과 노모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지방 호족 간의 정략결혼을 통해 기울어가는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던 지방 호족들의 권력을 견제하려 했다. 학자들은 웨니의 자전적 기록에 언급된 왕비가 바로 앙크네스-메리레 3 세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Malek, 2000: 114-115; Tyldesley, 2006: 58-59). 고왕국 시대 말기 왕은 결혼을 통해 지방호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했으나 이와 같은 상황은 도리어 왕권이 취약해진 틈을 타 왕위계승 절차에 개입하고자 했던 한 야심 만만한 왕비에게 위험한 모험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2.3. 두 번째 사례: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 아멘엠포트 1세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의 시조인 아멘엠포트 1 세(Amenemhat I: 기원전 1985-1956 년)는 왕위를 찬탈한 인물이었다. 아멘엠포트 1 세는 제 11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넵타위레 몬투호텝 4 세(Nebtawyre Montuhotep IV: 기원전 1992-1985 년)의 총리대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조부 넵헤페트레 몬투호텝 2 세(Nebhepetre Montuhotep II: 기원전 2055-2004 년)는 고왕국 시대 몰락 이후 거의 80 년 간 지속되었던 제 1 중간기(기원전 2160-2055 년)의 혼란을 끝내고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후 중왕국 시대를 연 인물이다. 이집트 남부의 중심 도시 테베(Thebes) 근처의 콤포스(Koptos)에서 홍해까지 연결된 건천 乾川 통로였던 와디 함마마트(Wadi Hammamat)의 채석장 지대인 하트눔(Hatnub)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총리대신 아멘엠포트가 왕의 석관에 사용될 석재를 구하기 위해 원정대를 이끌고 하트눔을 방문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려 깨끗하게 씻긴 석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한다. 이 “기적”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총리대신이 신의 총애를 받는 비범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일화라는 것은 분명하다(Callender, 2000: 156). 아멘엠포트 1 세가 어떻게 왕위를 계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왕위계승

²⁶ 아래 2.4. 세 번째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신왕국 시대 제 20 왕조 람세스 3세(Ramesses III: 기원전 1184-1153년)의 『투리노 법 파피루스』(Turin Judicial Papyrus)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범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을 바꾸는 관례가 있었는데 웨니의 자전적 기록에 등장하는 왕비의 가명은 이와 같은 관례가 고왕국 시대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각주 40번 참조.

직후 반란을 암시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집트의 재통일 후에도 상당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던 일부 지방 호족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멘옴하트 1 세는 왕위에 오른 후 담수호인 파이옴 호수 근처에 새 수도인 이취타위(Itjtawy)를 건설하고 이 지역을 개간하는 등 내치에 힘쓰는 한편,²⁷ 고왕국 시대 이후 처음으로 조직적인 군대를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파견하여 이집트의 군사적 팽창을 시도했으며 이집트와 시리아-팔레스타인을 잇는 이집트 동북부 국경지대에 방어를 위한 군사 요충지인 *jnb ḥq(3)* “군주의 벽”(Walls of the Ruler)을 건설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12 왕조 초기의 정국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왕의 암살 역시 이렇게 불안한 내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새 왕조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학작품이 다수 창작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재앙문학(catastrophic literature) 장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네페르티의 예언서』(Prophecies of Neferti)이다. 작품의 화자인 예언자 네페르티는 이집트 남부에서 한 왕이 출현하여 아시아의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한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할 왕의 이름은 아멘옴하트 1 세를 암시하는 아메니(Ameny)이다.

『네페르티의 예언서』 (p.Leningrad 1116B, 50-60; 63-64; 66-69)

nswt pw r jjt n rsj / (jmn) m3^c ḥrw rn.f
z3 ḥjmt pw n t3-st(j) / ms pw n ḥn(w) nḥn
jw.f r šzp ḥdt / jw.f r wtz dšrt
jw.f r zm3 šhmtj / jw.f r štp nbwj m mrwt.sn
phr-jhj m fh^c.(f) / wsr m nmwdt.(f)
jw 3mw r ḥr n šct.f / tmḥw r ḥr n nswt.f
tw r qd jnbw ḥq(3) ḥnh.(w) (w)d3.(w) s(nb.w) / nn rdt ḥjj 3mw r kmt
dbḥ.sn mw mj šhrw sš3w r rdjt swrj mw 3wt.sn
jw m3^c t r jjt r st.s, jzft d(3j)r.tj r rwtj

남쪽으로부터 왕이 오실 것이니 아메니 진실된 목소리가 그 존명이시라.

황의 땅[누비아]의 여인의 아들이시며 네켄[히에라콘폴리스] 가문의 후손이라.

그분께서는 백색관을 취하실 것이며 적색관을 들어올리리라.

그분께서는 그들의 염원대로 두 힘을 하나로 합치실 것이며 두 주^主를 만족시키시리라.

들판의 측량줄을 쥐고 계실 것이며 노^柁를 저으시리라.²⁸ ...

²⁷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의 수도 이취타위는 고왕국의 행정수도 멤피스(Memphis)에서 남쪽으로 약 3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온전한 지명은 *jmn-m-ḥ3t jji-t3wj* “아멘옴하트, 두 땅을 취하시는 이” 혹은 “아멘옴하트께서 두 땅을 취하시다”이다. 아멘옴하트 1세는 근처 파이옴 호수를 개간하여 농경지를 늘리고 시리아-팔레스타인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²⁸ 여기서 *phr-jhj* “측량줄”은 신전을 건설하기 위해 신성한 치수를 재는 왕의 권능을 상징한다. 한편 *wsr* “노”는 국가를 배에 비유한 맥락에서 언급된 것이다. 대개 왕은 국가라는 배의 조타수로 묘사된다.

아시아인들은 그분의 살육에 쓰러질 것이며, 리비아인들은 그분의 화염에 쓰러지리라. ...

군주 - 장수 • 번영 • 강성하소서 - 의 벽이 건설될 것이니

아시아인들을 검은 땅으로 오게 하는 일이 없으리라.

청원자들의 처신대로 그들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물을 구걸하게 되리라.

마아트가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이며 이제페트는 축출되리라.

그러나 흥미롭게도 아멘헴하트 1 세의 시해와 관련된 기록은 모두 사료로 간주할 수 있는 기념석비 혹은 공문서가 아니라 서사문학 작품에 묘사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허구로 여겨지는 서사문학 속의 사건을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멘헴하트 1 세가 실제로 시해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서사문학 작품이자 아멘헴하트 1 세의 죽음을 작품의 대표적인 모티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는 『시누헤 이야기』(Tale of Sinuhe)에서는 왕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무런 배경설명 없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만 언급된다(p.Berlin 10499, 5-11): *rnpt-hsbt 30 3 3ht 7 / ʿr ntr r 3ht.f nswt-bjt (sh̄tp-jb-rʿ) / sh̄r.f r pt hnm.(w) m jtn / hʿ-ntr 3bh.(w) m jr sw / jw hnw m sgr / jbw m gmw / rwtj wrtj htm.w / [šny]t m [tp]-hr-m3st / pʿt m jmw* “치세 30 년 범람기 셋째 달 7 일 신[아멘헴하트 1 세]께서 그의 아케트로 오르심이라. 상하이집트의 왕 세헤텡이브레 폐하께서 하늘에 오르사 태양원반과 하나가 되시고 신[왕]의 몸은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결합하셨다. 도성[수도 이취타위]은 침묵에 잠겼고 심장은 비탄에 빠졌으며 두 대문은 잠겼으니, 궁인들은 머리를 무릎에 묻었고 귀족들은 애도하였다.”²⁹

그렇다면 『시누헤 이야기』에 언급된 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왕이 예기치 않게 죽었다는 사실은 당시 적법한 왕위 후계자였던 센와세레트 1 세(Senwosret I: 기원전 1956-1911 년)가 부왕의 명령을 받고 리비아 지역에서 정복과 토벌을 위한 원정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작품에서는 원정 중이던 왕태자 센와세레트 1 세에게 왕실 전령이 급박하게 파견된다. 왕의 서거를 앞둔 시점에서 왕태자가 원정을 위해 왕궁을 떠나는 일은 이집트에서는 있을 수 없다. 신화적 선례에 따라 호루스는 세트에 의해 살해당한 선왕^{先王} 오시리스에 대한 장례를 치른 후 적법한 왕이 된다. 요컨대 이집트에서는 “상주가 계승한다”는 법칙이 언제나 유효하다. 따라서 만일 부왕이 곧 서거할 상태였다면 센와세레트 1 세는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의 원정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센와세레트 1 세는 제때에 귀국하지 못한다면 다른 왕자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센와세레트 1 세가 말 그대로 날아 오른 것(p.Berlin 10499, 21) - *bjk ʿh.f* “매[센와세레트 1 세]는 날아올랐다” - 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아멘헴하트 1 세의 시해와 관련하여 이런 정황적인 묘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시누헤 이야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멘헴하트 1 세의 교훈서』(Instruction of Amenemhat I)에서는 살해 당한 왕이 마치 햄릿 왕

²⁹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이 즉위한 해로부터 연도를 세었다. 또한 1년을 (1) *3ht* “범람기”(7월 중순-11월 중순), (2) *pri* “파종기”(11월 중순-3월 중순), (3) *šmw* “수확기”(3월 중순-7월 중순) 등 세 계절로 나누었으며 각 계절은 다시 각각 30일로 구성된 10 달로 세분되었다. 또한 “두 대문”은 왕궁의 정문을 의미한다. 도성의 정문이 잠겼다는 것은 왕의 알현실로 이어진 통로가 닫혔다는 의미이며 왕의 서거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한편 머리를 무릎 위에 두는 것은 이집트인들이 애도를 할 때 취하던 전형적인 자세이다.

자(Prince Hamlet)의 부왕처럼 유령이 되어 아들 센와세레트 1 세의 꿈에 나타나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한다. 꿈에 나타난 선왕의 유령은 자신이 시해 당했다는 것을 아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아멘엠평트 1 세의 교훈서』 (p.Millingen, I,10-II,5)

(j)r s3 msyt pw h3w hpr.(w) / šzp.n.j wnwnt nt nfr-jb / sdr.kw hr hnkyt.j b3g.n.j
š3f.n h3tj.j šms qd.j / jst sphr h3w nd r-hr.j / jr.kw mj z3-b n sm(j)t
nhs.n.j n h3w n h3w.j / gm.n.j hwny-r-hr pw n mnf
jr šzp.j 3st h3w m drt.j / jw dj.n.j ht hmw m- hmt n mkw
nn swt qn grh / nn h3 w3ty / nn hpr zp m3r m-hmt n mkw
mj.k st3w hpr.(w) jw.j m-hmt.k / n s3mt šnyt sw3d.j n.k / n hmt.j hn3.k jh jry.j shrw.k
hr-ntt n(j) hr.j st n(j) hmt.j st / nj jn jb.j wsft nt b3kw

저녁을 물린 뒤라 밤이 되었다. 나는 쾌락의 시간을 가졌고 노곤하여 침대에 누웠노라. 내 심장이 잠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위호^{衛護}의 병기가 (되려) 나를 겨누매 나는 사막의 뱀처럼 행동했노라. (의식이) 돌아와 싸우기 위해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이 근위병의 일격임을 알았노라. 내가 병기를 재빠르게 잡았더라면 겁쟁이들이 혼비백산 뒤통을치게 만들 것이었으나 밤에 강한 자는 없으며 홀로 싸울 수 없고 조력 없이 성공할 수도 없는 법이라. 보라, 내가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왕위를) 양도한다는 말을 궁인들이 아직 듣지 않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앉아 너의 일을 아직 도모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나니 이는 내가 그것에 방비하지 않았고 숙려하지도 않았으며 종들의 불충에 패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엠평트 1세의 유언과 같은 이 교훈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왕은 침소에서 h3w nd “위호의 병기”를 자신에게 휘두른 근위병에 의해 살해되었다. 근위병과 같은 왕의 최측근이 왕을 시해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왕실 내부, 특히 아래 람세스 3세(Ramesses III: 기원전 1187-1156년)의 사례에서와 같이 왕실 사저의 왕녀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이와 같은 추정은 『시누헤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센와세레트 1세의 원정을 수행 중이던 주인공 시누헤는 궁성에서 발생한 아멘엠평트 1세의 시해 소식을 듣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다(p.Berlin 10499, 22-29): j[s]t h3[b] r msw-nswt / wnw m ht.f m š3f pn / njs.n.tw n w3 jm jst wj h3.kw / sdm.n.j hrw.f jw.f mdw.f / jw.j m r w3 / pzh jb.j zn w3.j / sd3 hr.(w) m t.j nbt / n3f.n.j wj m nftft / r h3j n.j st dg / r dt.j wj jmtw b3tj / r jwd w3t šmw.s “그때 이 원정에서 그[센와세레트 1세]의 뒤를 따르던 왕실의 자녀들에게도 (전령이) 보내지니 그 중 한 명이 호명될 때 (마침) 내[시누헤]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전령]가 말 할 때 나는 조금 떨어져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심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며 팔은 늘어지고 사지가 떨리니 숨을 곳을 찾아 펄쩍 뛰어올라 행인과 길이 나뉘는 풀숲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이 진술에 따르면 아멘엠평트 1세가 시해되었다는 소식은 왕태자인 센와세레트 1세 이외의 다른 왕자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전령으로부터 무언가 아주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듣는다. 그리

고 이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 시누헤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 원정대에서 탈영하여 일생에 걸친 도주와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시누헤가 들었던 내용은 무엇일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왕의 시해를 완수한 왕비나 후궁이 자신의 아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내용은 시누헤를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집트를 떠나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돌게 만들 만큼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니었을까? 더구나 당시 시누헤는(*p.Berlin 10499*, 3-5), *b3k n jp3t-nswt (j)rt-[p^ct] wrt-hzwt hjmt-nswt-z(j)-n-wsrt m hnm-[js]wt z3t-nswt-jmn-m-h3t m q3-nfrw nfrw nbt jm3h* “높이 칭송 받는 이, 케넬수트에 거하시는 센와세레트 폐하의 대비 마마와 카네페루에 거하시는 아멘엠평하트의 왕녀, 공경 받으시는 여주, 네페루 공주 마마의 왕실사저의 궁인”이었다.³⁰ 요컨대 시누헤는 왕실사저 내의 역학관계나 음모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따라서 전령이 전한 메시지의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누헤 이야기』와 『아멘엠평하트 1세의 교훈서』에 묘사된 국왕시해 사건이 왕비나 후궁의 음모였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음모였다. 왜냐하면 아멘엠평하트 1세는 살해당했지만 왕위는 선왕의 구상대로 왕비 네페리타체넨(*Neferitatjenen*)의 아들 센와세레트 1세에 의해 “무사히” 승계되었기 때문이다(*Allen, 2010: 264*). 필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아멘엠평하트 1세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시누헤 이야기』와 『아멘엠평하트 1세의 교훈서』가 허구를 다루는 문학작품들이고 더구나 이들은 체제를 찬양하기 위해 창작된 어용문학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왕이 실제로 살해되지 않았다면 왕의 시해라는 극단적인 주제를 문학적 모티프로 다루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멘엠평하트 1세의 교훈서』는 센와세레트 1세 치세에 활약했던 서기관 케티(*Kheti*)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센와세레트 1세는 이 교훈서를 통해 부왕의 시해사건을 왕권계승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Thériault, 1993: 158-160*). 아멘엠평하트 1세의 피살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왕의 시해 이야기는 이후 끈질기게 전승되면서 마침내 고대 그리스의 역사 저술가인 헤로도토스(*Ἡρόδοτος ὁ Ἀλικαρνασσεύς*: 기원전 484-425년)에게도 전달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저서 『역사』(*Ἱστορίαι*)에서 아멘엠평하트 1세의 시해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역사』 (2.107)

신관들에 따르면, 아이굽토스 왕 세소스트리스는 귀국할 때 그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세소스트리스가 펠루시온의 다프나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원정 기간 중 아이굽토스의 통치권을 위임 받았던 그의 아우가 그에게 연회를 베풀며 그의 아들들도 함께 초대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그의 아우는 집밖에 장작을 빙 둘러쌓고 불을 질렀다. 세소스트리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즉시 아내에게 조

³⁰ 정비와 왕녀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카르투쉬 안에 표기되지 않은) 아멘엠평하트 1세와 센와세레트 1세의 왕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약 10년에 걸친 이 두 왕의 공동통치(*coregency*) 시기이기 때문이다. 등장 인물 중 한 명인 *nfrw* “네페루”(Neferu) 공주는 아멘엠평하트 1세의 딸이자 센와세레트 1세의 정비이며 다음 왕인 아멘엠평하트 2세의 어머니이다. 한편, *hnm-jswt* “케넬수트(Khnemsut)”와 *q3-nfrw* “카네페루(Qaneferu)”는 중왕국 시대의 수도 이취타위 인근에 조성된 센와세레트와 아멘엠평하트의 피라미드 단지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을 직역하면 각각 “자리들이 하나된 곳”(United of Places)과 “완벽함으로 높은 곳”(High of Perfection)이다.

언을 구했다. 그는 아내도 함께 데려갔던 것이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의 여섯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을 화염 위에 누이면 나머지는 그들을 다리처럼 밟고 탈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소스트리스는 그렇게 하였고 비록 두 아들은 불타 죽었지만, 나머지 아들들은 아버지와 함께 탈출할 수 있었다.³¹

여기서 Σέσωστρις “세소스트리스”(Sesostris)는 지방호족들을 억누르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키면서 중왕국 시대 12 왕조를 번영으로 이끈 센와세레트 3세(Senwosret III: 1870-1831년)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세소스트리스”는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의 람세스 2세(Ramesses II: 기원전 1279-1213년)와 함께 『역사』를 비롯한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 문헌에서 “강력한 파라오”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는 아멘옴하트 1세의 시해보다는 「오시리스 신화」의 서사구조를 상기시킨다. 따라서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의 지배(후기왕조 시대 제 27 왕조: 기원전 525-404년)를 받던 이집트를 방문했던 기원전 480년경 신관들이 그에게 전한 이야기는 「오시리스 신화」와 왕의 시해와 관련된 이런저런 전승을 모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옴하트 1세의 시해사건은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집대성한 그리스 지배기(기원전 305-30년) 시대의 신관 마네토(Μανέθων: 생몰년도 미상)의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를 “해방”시키고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세운 마케도니아 출신의 왕들은 자신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집트의 마지막 지배자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두 번째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푸스(Πτολεμαῖος Φιλάδελφος: 기원전 309-246년)는 하이집트 북부 세베누토스(Σεβέννυτος) 출신의 신관 마네토에게 당시까지의 이집트의 역사를 총괄하는 역사서를 저술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아이키프티아카』(Αἰγυπτιακά)라는 이집트 역사서가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헬라어로 저술되었다. 그러나 이 문헌은 소실되었으며 1세기에 활동했던 로마의 유대인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Flavious Josephus: 37-100년)와 같은 저술가들의 인용을 통해서만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³² 『아이키프티아카』에서 왕의 시해사건은 단 두 줄로 언급된다(Waddell Fr. 34.3 = Verbrugge/Wickersham F2a, XII.2): Ἀμμανέμης, ἔτη λή, ὃς ὑπὸ των ἰδίων ἐννούχων ἀνῆρέθη. “아멘네메스[Ammenemes: 아멘옴하트 1세] 38년. 그는 자신의 환관에 의해 살해당했다.”

³¹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파주: 도서출판 숲, (2009), 222쪽.

³²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본명은 요세프 벤 마티타후(יוסף בן מתתיהו)이다. 제 1 차 유대전쟁(First Jewish-Roman War: 66-73년)에 갈릴리(Galilee) 지역의 요타파타(Jotapata)의 유대 방위군 지휘관으로 참전했으나 포로로 잡힌 후 로마로 전향하였으며 로마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아누스(Titus Flavius Vespasianus: 9-79년)의 배려로 석방된 후 로마시민이 되었다. 75년경 로마와 유대 민족 간의 전쟁을 서술한 『유대전쟁사』(De Bello Judaico), 95년경 『유대상고사』(Antiquitates Judaicae)를 저술했으며 97년경 저술한 『아피온 반박문』(Contra Apionem) 등에서 마네토의 『아이키프티아카』를 인용했다. 또한 2-3세기의 역사가 섹스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Sextus Julius Africanus: 160-240년경)와 카에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Εὐσέβιος τῆς Καισαρείας: 260/265-339/340년)가 각기 다른 필사본을 바탕으로 『아이키프티아카』의 요약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세 번째 사례: 신왕국 시대 제 20 왕조 람세스 3세

람세스 3 세(Ramesses III: 기원전 1187-1156 년)가 왕위에 즉위한 기원전 12 세기 말 이집트의 국내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다. 대외적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해양민족(Sea Peoples)이 에게해(Aegean Sea)에서 아나톨리아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지중해 전역을 휩쓸면서 히타이트 제국과 팔레스타인 연안의 페니키아 도시국가들이 멸망하였다. 그 결과 “강대국 클럽”으로 대표되던 국제질서가 붕괴되었으며 이집트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국제적인 교역망의 붕괴와 시리아-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의 상실, 해양민족의 나일 삼각주 지대로의 침입과 서부 국경지대 리비아 부족들의 준동³³으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에 찾아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조공의 유입이 줄어들고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조세수입이 부족해짐에 따라 테베 서안의 왕실 묘역과 귀족들의 분묘에 대한 도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고 부패가 만연했던 행정조직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서 왕묘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했던 장인들이 밀린 급료에 항의하여 세계 최초의 농성과 파업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³³

람세스 3 세는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집트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던 야심 만만한 파라오였다. 즉위 초기 그는 외세의 침략을 세 차례나 막아내야 했다. 치세 5년에는 서쪽 리비아에서, 치세 8년에는 해양민족과, 그리고 치세 11년에는 다시 서부의 리비아에서 전쟁을 치렀다. 람세스 3 세는 이처럼 암살당하기 전까지 31 년 간 청동기 시대 말기의 혼란에서 이집트를 방어하는 한편, 국내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했다. 람세스 3 세에 대한 시해음모와 공모자들의 실제 실행과정은 『투리노 사법 파피루스』(Turin Judiciary Papyrus)³⁴를 비롯한 풍부한 문헌자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 『사법 파피루스』는 『웨니의 자전적 기록』과 같이 호호하지도 않고 『시누헤 이야기』나 『아멘엠포트 1 세의 교훈서』와 같은 문학적 허구도 아니다. 시해음모에 참가했던 모든 당사자들을 심문하여 알아낸 그들의 범죄행각과 그에 따른 처분이 상세하게 기록된 공문서로서 신빙성이 매우 높은 사료이다. 대부분 람세스 4 세(Ramesses IV: 기원전 1156-1150 년) 치세에 작성된 이들 심문 및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음모를 주도했던 사람은 람세스 3 세의 후궁인 티예(Tiye)와 그녀의 아들 펜타웨레트(Pentaweret) 왕자였다.

당시 람세스 3 세의 정비는 이세트 타-헴제레트(Iset Ta-Hemdjert)였으며 공식적인 후계자는 정비 혹은 티티(Titi)라는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람세스 4 세였다(Grist, 1985: 80-81; Dodson & Hilton, 2004: 186-

³³ 람세스 3세 치세 29년 왕묘 건설을 위해 왕실에서 고용한 전문 장인들이 밀을 비롯한 여러 물품의 보급이 계속 지연되자 농성과 파업을 벌였다. 최초의 농성과 파업은 장인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단 거주지를 떠나 테베 서안의 장제전에 머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당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농성과 파업은 일단 종결되었지만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농성과 파업이 여러 번 발생했다(Vernus, 2003: 50-69).

³⁴ 『투리노 사법 파피루스』는 원래 한 장의 문서였다. 문서의 높이는 약 50센티미터, 길이는 5미터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를 입수한 탐욕스러운 신원미상의 도굴꾼은 문서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팔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하면서 원본의 일부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 이렇게 절단된 파피루스는 소유자의 이름을 따서 『롤린 파피루스』(Papyrus Rollin)·『바흐지 파피루스』(Papyrus Varzy)·『리 파피루스』(Papyrus Lee)·『리포 파피루스』(Papyrus Rifaud)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들이 원문에서 차지했던 정확한 순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189).³⁵ (람세스 4 세는 형이 요절한 후 부왕의 재위 22 년이었던 12 세 무렵에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한편 람세스 3 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암살당하기 1-2 년 전 일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북부 삼각주의 수도 파-람세스에서 남부 테베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때 왕을 따라 테베로 온 티에는 우선 금제의 장소였던 왕실 사저의 후궁 중 일부를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한편, 왕궁의 식기장^{食器藏} 감독관이었던 집사장 파이바크카멘(Paibakkamen)을 비롯하여 알현실 담당관 • 시종 • 이재국^{理財局} 관리 등 상당 수의 궁정 고위 관리들과 심지어 군 지휘관과 고급 장교까지 음모에 끌어들었다. 티에는 왕을 암살하고 반란을 사주하면 민중들이 봉기할 것이고 이렇게 발생한 혼란을 틈타 군의 목인 하에 람세스 4 세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인 펜타웨레트를 왕위에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티에를 비롯한 공모자들의 최초의 암살시도는 -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이없게도 - 주술을 통해 실행되었다. 공모자들은 밀랍으로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독약을 조제하여 왕실 근위대를 무력화시키고 왕에 대한 신적인(초자연적인) 보호를 해제시켜 왕에 접근하려 했다. 이를 위해 왕실 주술사와 왕의 주치의가 왕실 도서관에서 주술에 참고할 파피루스를 빼돌리고 흑마술(black magic)을 위한 신상^{神像}을 제작했으나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시도는 당연히 실패로 끝났다.

『롤린 파피루스』 (p.Rollin = JEA (49), pl. X, 1-6)

*jw.f hpr hr jr(t) zh3w n hk3w n stwh3 n shnw / hr jr(t) nhy n ntrw n mnḥ nhy n phrwt n djt gnn ʿt n rmt /
djt.w m drt p3-b3k-k3mn ntj bw pw p3 rʿ dtj jry.f ʿ3 n ʿt n3 kt-h(t) hrw ʿ3w / r dd / mj hn.w mtw.w dtj hn.w
/ hr-jr sw dtj ʿq jr n3 bjnw / j.jr.f ntj bw pw p3 rʿ dtj hpr rd.f jm.w

jw.tw smtr.f / jw.tw gm m3ʿt m bt3 nb bjn nb / j.gm h3tj.f r jrt.w / jw m3ʿt jm.w / jw jry.f sn r dr.w jrm.w
n3 kt-h(t) hrw ʿ3w mj qd.f / jw bt3w ʿ3w n m(w)t n3 / bwt ʿ3 n p3 t3 n3 j.jrt.f / hr-jr sw ʿm m n3 bt3w ʿ3w n
m(w)t j.jrt.f / jw.f m(w)t n.f ds.f*

주술 • 미혹 • 분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한 문서가 작성되고, 사람의 사지를 쇠약하게 할 목적으로 신들의 밀랍 형상이 제작되고 약물이 조제되었으며,³⁶ 이들[문서 및 형상]이 - 태양신께서 그가 (그 직책을) 수행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 식기장^{食器藏} 집사장 파이바크카멘과 대역죄를 저지른 공범들에게 건네지면서 그 사건[람세스 3 세 시해음모]이 발생하였으매 그가, “그들을 (왕궁) 안으로 들게 하라” 하니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범죄자들이 들어가게 되니 - 태양신께서 결코 성사시키시지 않았을 - 그[펜타웨레트 혹은 고위관리(?)]가 그들[공모자들]과 함께 행동함이라.

그[펜타웨레트 혹은 고위관리(?)]는 조사 받았고 그의 심장이 구상했던 모든 범죄와 모든 죄악의 진상이 밝혀졌다. 그 모든 것은 진실이었고 그는 그것[범죄]을 그들, (즉) 그와 같은 다른

³⁵ 람세스 3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존재하지만 람세스 6세(Ramesses VI: 기원전 1143-1136년)가 이세트 타-헴제레트의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Dodson & Hilton, 2004: 186-190; Tyldesley, 2006: 167-168).

³⁶ 이 문장의 *nhy n phrwt* “일부 처방/약물”에 있어 관련 단어를 *rmt* “사람” 대신 *phrt* “처방”으로 번역한 것은 로버트 K. 리트너(Robert K. Ritner: 1953-2021년)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Ritner, 1993: 54, no. 250; 193-194, no. 893).

대역죄를 저지른 범인들과 함께 전부 행했다. 이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며 그가 행한 것들은 이 땅[이집트]이 혐오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행한 이들 대역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어 공모자들은 테베 서안 메디넷 하부(Medinet Habu; 아랍어: مدينة هابو)에 위치한 람세스 3세의 장제전 葬祭殿 (mortuary temple)에서 거행될 *ph-ntr* “신에게 당도 當到 함,” 즉 “신탁”(oracular consultation) 행사에서 소란을 틈타 왕을 시해하는 동시에 군사 쿠데타를 교사 敎唆하고 민중봉기를 선동하려 했다. 왕의 시해는 첫 번째 탑문(pylon)과 두 번째 탑문 사이에 조성된 소규모 왕궁에서 실행될 예정이었는데 여기는 왕이 신전에서 거행되는 행사를 집전할 때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예복으로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일종의 임시 숙소였기 때문에 티에 왕비를 비롯한 후궁들이 왕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었다. (아마도 바구니 같은 것에 단검을 숨겨 왕을 처단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살 혹은 교살 絞殺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행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살해시도는 “일단” 성공했다.

1882년 왕실에서 고용한 장인들의 집단 거주지인 데이르 엘 메디나(Dier el-Medina; 아랍어: دير المدينة) 근처의 귀족분묘(TT 320)에서 총 50구의 왕·왕비·왕족의 미라가 발견되었다. 제 3 중간기 제 21 왕조(기원전 1069-945년)의 관리들은 아문의 고위 신관 피네젬 2세(Pinedjem II: 기원전 990-969년)의 분묘였던 이곳을 도굴꾼들로부터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미라를 은닉할 비밀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람세스 3세의 미라(그림 3)도 발견되었는데 발견 초기에는 미라 전체가 역청으로 덮여 있어 부검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단검 등에 의한 살해와 함께 독살 혹은 교살 등 시해방법에 대한 여러 가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2년 진행된 CT 촬영에서는 식도와 기도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관통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왼쪽 엄지 발가락 역시 부분적으로 잘려 나간 후 (사망으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Hawass & Saleem, 2016: 181-182; 187-188; 190-191). 이를 통해 람세스 3세가 실제로 공모자들의 공격을 받았으며 왕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더라도 (아마도 암살의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검시 檢屍 결과를 고려할 때 『투리노 사법 파피루스』에서는 람세스 3세가 이 사건을 담당할 재판관들을 직접 임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왕이 사망한 후 그의 유지 遺志를 받든 사후 임명(posthumous appointment)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리노 사법 파피루스』는 총 27명의 남성과 6명의 여성이 대역죄로 취조를 받았으며 5명의 남성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대역죄로 체포된 국사범들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행해졌으며 왕족과 일부 관리들에게는 자살형, 다른 범인들에게는 사형이 각각 언도되었다. 사형은 말뚝에 꽂아 죽이는 신체관통형(impalement: 그림 2)이나 화형의 형식으로 집행되었다. 신체관통형은 말뚝에 꿰인 부분(고대 이집트의 경우, 이를 묘사한 성각문자를 고려할 때 말뚝에 꿰이는 부분은 허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의 출혈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는 잔인한 형벌이었으며 따라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만 집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Tyldesley, 2000: 65-66).³⁷

³⁷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 아시리아 군이 포로나 적의 수장을 말뚝에 꿰어 죽이는 형벌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



그림 2. 신체관통형 = 말뚝에 꿰어 죽이는 형벌을 묘사한 성각문자³⁸

화형 역시 사망까지의 과정이 고통스럽고 시신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집트의 사생관에서는 영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무서운 형벌로 여겨졌다(Tyldesley, 2000: 66-68).³⁹ 한편, 죄가 비교적 가벼운 범인들은 코와 귀가 잘리는 형벌에 처해졌으며 음모를 알면서도 당국에 고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에게까지 불고지죄가 적용되었다.⁴⁰

저 있다. 예를 들어, 신^新앗슈르 제국의 개혁신군주였던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Tiglath-pileser III: 기원전 744-727년)의 칼후(Kalhu) 중앙궁전 벽면부조의 공성전 장면에서는 성에서 잘 보이는 곳에 포로 등이 말뚝에 수직으로 박혀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센나헤립(Sennacherib: 기원전 704-681년)의 니네베(Nineveh) 왕궁 벽면부조의 라키쉬(Lachish) 포위공격 장면에서도 유다 왕국의 병사들이 말뚝에 박혀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Darius I: 기원전 521-486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했을 때 포로 3천 명을 신체관통형에 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역사』 3.159): “그리하여 이제 바빌론은 두 번째로 함락되었다. 다레이오스는 또 그곳의 요인 3,000명에게 말뚝을 꿰어 죽이는 벌을 내렸으나, 나머지 바빌론인들은 예전처럼 도시에서 계속 살게 해주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왕이 이란의 비스툰(Bistun, 페르시아어: بیستون) 산에 새긴 다국어 비문인 『베히스툰 비문』(Behistun Inscription)에도 기록되어 있다. 『역사』 원문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였다: 헤로도토스, 『역사』,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2009), 364쪽.

³⁸ 출처: Joyce Tyldesley, *Judgement of the Pharaoh: Crime and Punishment in Ancient Egypt*, London: Phoenix, (2000), p. 65.

³⁹ 고대 이집트의 서사문학 작품에서 화형은 부정을 저지른 여인들이 화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중왕국 시대(기원전 2055-1650년)의 『웨스트카 파피루스』(Papyrus Westcar)에서는 고왕국 시대 제 3 왕조 네브카(Nebka: 기원전 2686-2667년) 왕이 부정을 저지른 수석 독경신관 우바이네르(Ubainer)의 아내에 대하여 화형을 집행할 것을 명령한다(p. Westcar, 4,8-10). 또한 신왕국 시대(기원전 1550-1069년)의 『두 형제 이야기』(Tale of Two Brothers)에서는 아누비스(Anubis)가 동생 바타(Bata)를 유혹한 자신의 아내를 화형에 처한다(p. d'Orbiney = p. British Museum 10183, 8,6-8). 한편 파라오의 시해음모와 관련하여 화형이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래 각주에서 언급될 『앙크쉐송키의 교훈서』(Instruction of Onchsheshonqy)에도 등장한다.

⁴⁰ 『투린 사법 파피루스』에서 불고지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왕실사저 문지기들의 아내 6명이다(p. Turin Judicial, 5,1). 불고지죄와 관련하여 후기왕조 시대(기원전 664-332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데모틱어(Demotic) 문학 작품 『앙크쉐송키의 교훈서』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발견된다. 이 교훈서의 도입부에는 저자인 앙크쉐송키와 관련한 일화가 소개되는데 여기에서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파라오를 시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등장한다. 한 궁인이 근위대·장군·고위 관리들이 연루된 시해음모가 있음을 왕에게 고한다. 왕은 다음날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화형에 처한다(p. British Museum 10508, 4,3-5).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신뢰해왔던 앙크쉐송키를 불고지죄로 투옥한다. 파라오는 얼마 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면해주지만 앙크쉐송키만은 석방하지 않는다. 낙담한 앙크쉐송키는 왕의 허락을 받아 감옥에서 아들을 위한 교훈서를 작성한다. 앙크쉐송키의 교훈서는 교훈서가 쓰여진 배

『투린 사법 파피루스』 (p.Turin Judicial, 5,7)

*p(3)-n-t3-wr(t) p3 wn.tw (hr) dd n.f p3 ky rn / jn.tw.f hr p3 hwt.f j.jr.f <hr> tjy t3y.f mjw m-dr wn.s w3w3
n3 mdwt jrm n3 hjmwt pr hnr t [hr] jrt.s b {st} (?) hr nb.f / jw.tw (hr) djt.f m-b3h wb3w r smtr.f / jw gm.tw.f
m ʕd3 / jw.w wh3.f hr st.f / jw.f m(w)t n.f ds.f*

한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⁴¹ 펜타웨레트. 그는 그의 어머니 티예가 그의 주[람세스 3 세]에 대한 반역을 왕실 사저의 여인들과 모의할 때 그녀와 공모하였기 때문에 소환되었다. 그는 취조를 위해 집사장들 앞으로 소환되었으며 유죄임이 밝혀졌다. 그는 그의 거처에 (홀로) 남겨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펜타웨레트 왕자는 자살형을 언도 받고 자신의 거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티예와 그녀와 같이 음모에 가담한 후궁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이들 역시 펜타웨레트 왕자와 같이 자살형에 처해졌을까? 아니면 그보다 더 가혹한 화형과 같은 형벌이 집행되었을까? 아니면 지위 혹은 죄질에 따라 저마다 다른 처벌을 받았을까? 새로운 문헌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역시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슬한 고고학적 미제^{謎題}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역사의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나오며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고대 이집트의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의 페피 1 세(기원전 2321-2287 년) •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의 아멘헴하트 1 세(기원전 1985-1956 년) • 신왕국 시대 제 20 왕조의 람세스 3 세(기원전 기원전 1187-1156 년) 치세의 국왕시해 음모의 본질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후대로 갈수록 활용 가능한 문헌증거의 양과 질이 증가하는 가운데 페피 1 세의 경우에는 자신이 왕의 측근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귀족의 자전적 기록에 간략하게 언급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혐의를 재구성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멘헴하트 1 세의 시해 사건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없는 서사문학 작품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 정황만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었

경으로 왕의 시해음모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독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다.

⁴¹ 이 말은 펜타웨레트가 왕자의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름은 육체 • 그림자 • 영혼(카와 바) 등과 함께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특히 이름은 사후 사회적 영생을 위해 망자의 소유물이나 분묘 등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시해음모의 범인들이 색출되고 체포된 후 이들은 모두 원래의 “좋은” 이름에서 범인의 지위에 걸맞은 “나쁜” 이름으로 개명되었다(De Buck, 1937: 156, no. 1). 펜타웨레트 왕자의 경우, “위대한 여인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 *t3 wrt* “위대한 여인”은 그의 어머니 티예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쁘게 말하면 “기가 센 어머니의 위세에 휘둘린 자”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된 식기장 집사장 파이바크카멘은 “이 눈먼/맹목적인 중”이라는 의미이며 본명은 **p3-b3k-jmn* “아문의 중,” “파바크아멘”(Pabakamun)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범인들 역시 모두 “나쁜” 이름으로 개명되었는데 예를 들어 집사장 메세드수라(Mesedsura)는 *msd-sw-rʕ* “태양신께서 증오하시는 자”라는 뜻인데 본명은 **mr-n-rʕ* “태양신께서 사랑하시는 이,” 즉 메렌레(Merenre)였을 것으로 추정된다(Redford, 2008: 72-79).

으며 따라서 그 전모 등을 파악하는 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 람세스 3 세의 경우가 가장 풍부한, 그리고 정식 사료로 간주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문헌증거를 바탕으로 왕에 대한 시해음모를 비교적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파라오를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신-왕으로 보는 고대 이집트의 독특한 왕권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동시대의 신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라오의 시해를 음모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파라오의 숨길 수 없는 인간적 측면을 자주 접하면서 절대적 왕권 이데올로기와 실제 왕의 인간적 면모 사이의 괴리를 근거로 왕권의 권위조차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시할 정도의 실존적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왕비 혹은 후궁을 비롯한 왕가의 일원과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최측근들이었으며 그들의 동기는 하나같이 왕위 계승권의 찬탈이었다. 문헌증거를 통해 드러난 시해음모 사건의 경우 그 실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실패했으나 대부분의 문헌자료가 통치자에 유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성격의 문서들만이 폐기되지 않고 보존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왕을 시살한 후 왕위를 찬탈한 성공한 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의 투트모세 4 세(기원전 1400-1390 년)나 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기원전 1352-1336 년)과 같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른 왕들에 대해서는 왕태자의 살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바,⁴² 왕이 아닌 후계자를 살해하는 음모와 이들 음모의 성공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끝으로 「오시리스 신화」에 묘사된 신화적 선례로서의 왕의 살해 모티프가 최악의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국왕시해를 정당화해주는 목적으로 인용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오시리스 신화」에서의 오시리스의 살해·장례와 호루스의 즉위 서사는 일반적인 신-왕의 죽음과 장자로 대표되는 적법한 후계자의 계승에 대한 기원적 설명과 일종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준다. 아울러 「오시리스 신화」에서의 왕의 살해 모티프는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1854-1941 년)가 『황금가지』(Golden Bough)에서 제시한 상징적·의례적 왕의 살해와는 거리가 있으며(Frazer, 1963: 308-330) 식물의 성장주기를 반영한 “부활하는 신의 죽음” 신화소 안에서만 일정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투트모세 4세(기원전 1400-1390년) 치세 5년 기자(Giza)의 피라미드 단지에 세워진 �핑크스(Great Sphinx)의 양 발 사이에 세워진 소위 『현몽 現夢 석비』(Dream Stela)에 따르면 투트모세 4세가 왕자였을 때 �핑크스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호르-엠-아케트(Horemakhet), 즉 신왕국 시대에 태양신의 한 속성으로 숭배되던 �핑크스가 꿈에 나와 자신을 뒤덮고 있는 모래를 제거해주면 왕위에 오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석비의 텍스트가 파손되어 그 이후의 전개는 알 수 없으나 투트모세 4세가 호르-엠-아케트의 부탁을 들어주고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자들은 『현몽 석비』의 텍스트가 왕위를 찬탈한 투트모세 4세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Hassan, 1953: 83-91; Dodson & Hilton, 2004: 137; Tyldesley, 2006: 112). 물론 보다 후대의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중립적인 주장, 즉 투트모세 4세의 형제들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현몽 석비』의 텍스트가 왕위계승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Bryan, 1991: 38-92).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기원전 1352-1336년) 역시 친형 투트모세(Thutmose)가 부왕 아멘호텝 3세(기원전 1390-1336년) 치세 30년경 사망하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Dodson, 1990: 87-88; Dodson & Hilton, 2004: 157) 투트모세 4세와 유사한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림 3. 람세스 3 세의 미라 상체⁴³

람세스 3 세는 서거 후 왕가의 계곡에 조성된 왕묘(KV 11)에 매장되었으나 도굴이 성행하면서 고대 이집트의 신관들에 의해 세 차례나 옮겨졌다. 그의 미라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테베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아문의 최고위 신관 피네jem 2 세의 분묘(TT 320)였다. 현재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CG61083). 자신의 시해사건에 대해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는 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람세스 3 세의 미라를 비롯한 여타 왕실 미라는 제인 웰(Jane Wells Webb Loudon: 1807-1857 년)이 1827 년 출간한 『미라! 23 세기 이야기』(Mummy! A Tale of Twenty-Third Century)를 비롯한 소위 ‘미라 장르’(mummy genre) 작품들에 상당한 영감을 주었다.

유성환

브라운대학교 이집트학 박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 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문명학부 비전임 교수

⁴³ 출처: 위키피디아 갤러리

(https://en.wikipedia.org/wiki/Ramesses_III#/media/File:Ramses_III_mummy_head.png).

보론: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투탕카멘의 피살설



1925년 11월 11일 왕묘가 발견된 지 3년만에⁴⁴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의 유명한 “소년왕” 투탕카멘(Tutankhamun: 기원전 1336-1327년)의 미라에 대한 부검이 시작되었다. 미라의 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부검을 맡은 더글러스 E. 데리(Douglas E. Derry: 1874-1961년) 카이로 국립의대(Government School of Medicine, Cairo) 교수는 신중을 기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왕실 미라와 비교해도 투탕카멘의 미라의 상태는 극도로 취약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봉대는 거의 대부분 부패했으며 회색으로 변한 피부 역시 크게 손상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부검을 통해 투탕카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호리호리한 몸매를 가졌으며 신장은 약 1.67미터였다. 사랑니와 골단^{骨端} 접합(union of epiphyses)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사망시점은 약 18세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빌헬름 콘라트 뢰트겐(Wilhelm Conrad Röntgen: 1845-1923)에 의해 엑스선이 발견된 이후 엑스선 검진방법은 점진적으로 전세계에 보급되었으나(한국의 경우 1911년 조선총독부위원회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집단 묘역인 왕가의 계곡(Valley of the Kings)에 안치된 투탕카멘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는 43년 후에나 이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1968년 리버풀 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 해부학 교수인 로널드 G. 해리스(Ronald G. Harrison: 1921-1983년) 박사가 마침내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엑스레이 검진을 수행했다(그림 4).⁴⁵ 이 과정에서 해리스 박사는 왕이 미라로 처리되기 전에 갈비뼈가 부러졌고 두개골 내부에 뿔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해리스 박사가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는 머리와 목이 만나는 두개골 하단에 흐릿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 흐릿한 부분의 엑스레이 농도가 정상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이 뇌막조직 하부에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왕의 후두부^{後頭部}가 가격^{加撃} 당했을 가능성(살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⁴⁴ 1922년 11월 4일 투탕카멘의 왕묘(KV 62)로 이어지는 계단이 발견되었다. 발굴을 주도하던 하워드 카터(1874-1939년)는 발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카나본 백작(Earl of Carnarvon: 1866-1923년)에게 현장으로 빨리 와 달라는 전보를 보냈다. 카나본 백작 일행이 도착한 후 11월 26일 하워드 카터는 분묘의 전실^{前室}(antechamber)을 막고 있던 벽을 허물고 무덤을 개방했다. 1923년 2월 17일 카나본 백작은 이집트 관리·박물관 대표·공보부 직원 등 20명의 증인들과 함께 현실^{玄室}(burial chamber)의 봉인을 해제했다. 이어 영국의 저명한 고대 이집트 문헌학자인 앨런 H. 가디너(Alan H. Gardiner: 1879-1963년), 시카고 대학 동양학연구소(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의 설립자이자 고대 이집트 역사학자인 헨리 브리스티드(James Henry Breasted: 1865-1935) 등이 포함된 전문가 팀이 유물의 발굴·보존·복원 작업에 참여했고 1932년 카터가 왕묘의 정리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물이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Museum of Egyptian Antiquities; 아랍어: المتحف المصري)에 운송될 때까지 약 54,000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한편, 투탕카멘의 왕묘는 일반적으로 전혀 도굴되지 않고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고대에 약 두 차례 도굴된 바 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중 단 한 차례도 도굴되지 않고 현대에 발견된 무덤은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몬테(Pierre Montet: 1885-1966년)가 1939년 하이집트 타니스(Tanis)에서 발굴한 후기 왕조시대 제 26 왕조 페수센네스 1세(Pseusennes I: 기원전 664-610년)의 왕묘가 유일하다.

⁴⁵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또 다른 엑스레이 검사는 1978년 미시건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치열교정 전문의였던 제임스 해리스(James Harris) 박사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는 왕의 양쪽 눈 안와^{眼眶}(eye socket)가 내려앉았고 오른쪽 귀가 없다고 언급했으나 검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제시했다. 이와 같은 가능성에 대하여 롱아일랜드 대학(Long Island University)의 선임 연구원인 밥 브라이어(Bob Brier: 1943 년-현재)와 같은 일부 이집트학자와 작가・기자・일반인들은 엑스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와 같은 특징들이 바로 투탕카멘이 살해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Brier, 1998: 173).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투탕카멘은 그의 왕위를 노리던 누군가에 의해 후두부를 강하게 가격당했고 이 때문에 사망했다. 그렇다면 투탕카멘을 시해한 사람은 누구일까?

투탕카멘이 9 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 이집트는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부왕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Amenhotep IV/Akhenaten: 기원전 1352-1336 년)은 소위 “일신교 혁명”으로 유명한 “이단왕”(heretic king)이었다. 당시 이집트는 파라오가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와 같은 왕권과 교황권 간의 충돌이 발생할 위험은 없었다. 그러나 남부 테베(Thebes)의 주신  *jmn-r* “아문-레”(Amun-Re)와 그를 모시는 신관단(priesthood)의 권력은 전례 없이 비대해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은 급진적인 정책을 통해 종교에 대한 왕의 독점을 확립하려 했다. 이때 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이 선택한 새로운 신은 생명을 주는 빛이 뻗어 나오는  *jm* “태양원반,” 즉 “아텐”(Aten)이었다. 그는 아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의 신전을 폐쇄하고 신관단을 해체함으로써 이집트 문명이 수천 년 간 유지해왔던 공고한 다신교 체제를 그 기반부터 흔들었다. 그러나 이런 “종교개혁”이 그가 사망한 후 실패로 끝나게 되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투탕카멘은 부왕의 실패한 개혁을 중단하고 이집트를 과거의 다신교 체제로 다시 되돌리는 전무후무한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투탕카멘의 개혁치령』 비문은 즉위 당시의 혼란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투탕카멘의 개혁치령』 (Urk. IV, 22,5-9)

jst r.f h^c.n hm.f m nsw(t) / [j]w r3w-pr nw ntrw ntrwt š3^c m 3bw [nfrwt]-r h3wt jdh[w] [...] [w3].w r stp / h[m]w.sn w3.w r mrh hpr.(w) m j33w rd m [...] / jwnnw.sn mj ntj n hpr / hwt.sn m w3t rd / wnn t3 m snj-mnt / ntrw mkh3.sn t3 pn / jr h3b[.tw mš^c] r d3hj r swsh t3sw kmt n(j) hpr.n rwdt.sn nb / jr smnh[.tw n ntr r nd jht m-^c.f nn jj.n.f[rsj] / jr sš3j.tw n ntr nb m mjtt n jj.n.s rsj

“폐하[투탕카멘]께서 왕위에 오르셨을 때 신들과 여신들의 신전과 성읍은 (이집트 최남단의) 엘레판틴에서 (최북단) 삼각주의 습지에 이르기까지 무너져 내렸으며 그들의 성지는 잡초 무성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그들의 지성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변했고 그들의 신전은 오솔길이 되어버렸다. 신들이 이 땅을 버리셨으며 이집트의 국경을 넓히려 자히[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해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염원이 있어 신께 기도를 올려도 그분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같은 방법으로 여신께 탄원해도 그녀는 오시지 않았다.”

요컨대 지상에서 신들이 머물며 지상의 삶을 축복하던 아름다운 신국^{神國} 이집트는 선왕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신들이 모두 떠난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신들은 해외원정과 같이 이집트의 국가적 사업에도, 개인들의 사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렸다. 이제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왕 투탕카멘 밖에 없었다.

『투탕카멘의 개혁칙령』 (Urk. IV, 22,10-12)

hꜥyt [hm.f] hr st jt(j) / hq3.n.f jdbw hrw / kmt dšrt hr st-hr.f / t3 n m ksw n b3w.f / jstw hm.f m ꜥh.f jmj pr
ꜥ3-hpr-k3-rꜥ mj rꜥ m-hnw pt / wn.jn hm.f hr jrt šhrw nw t3 pn mhrw nw jdbwj / wnn.hr hm.f hr w3w3 šh
hnꜥ jb.f hr dꜥr zp nb mnḥ hr ḥhj 3ḥt n jt(j) jmn hr mst tjt.f špst m dꜥm m3ꜥ

“그러나 시간이 지나 폐하[투탕카멘]께서 부왕[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의 왕좌에 오르셨고 호루스의 양안^{兩岸}[이집트]을 다스리시도다. 케메트[검은 땅: 경작지]와 테체레트[붉은 땅: 사막]가 폐하의 통치 아래 놓였으며 모든 땅이 폐하의 권능에 굴복하였다. 폐하께서는 태양신께서 천계에 계신 것처럼 아아-케페르-카-레의 영지⁴⁶ 안의 왕궁에서 땅을 다스리셨으며 양안의 정사를 돌보셨다. 폐하께서는 심장이 권고하는 바대로 모든 선행을 고려하여 아버지 아문을 위한 방도를 모색하시던 차, 호박금^{琥珀金}으로 그의 고귀한 성상을 만드셨으니”

여기서 투탕카멘은 “종교개혁”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수습하고 통치권과 질서를 다시 수립하는 군주로 묘사된다. 실제로 재위 3 년 투탕카멘은 아문-레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다신교 체제로 회귀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때 왕과 왕비의 이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투탕카멘과 앙케센아문(Ankhesenamun)으로 교체되었다.⁴⁷ 그는 폐쇄되었던 신전들을 다시 복구하고 아문-레의 신관단을 비롯한 기존의 신관들의 지위를 복원해주었다. 또한 “종교개혁” 기간 중 가장 큰 탄압을 받은 아문-레를 위해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신상을 제작함으로써 아문-레를 최고신으로 하는 다신교 체제가 복원되었다는 메시지를 이집트 전역에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재위 10 년 투탕카멘은 18 세의 어린 나이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만일 그가 살해당했다면 그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우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물들을 살펴보자. 소년왕이 서거한 후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그의 총리대신이었던 아이(Ay: 기원전 1327-1323 년)이다. 그는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멘호텝 3 세(기원전 1390-1352 년) • 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기원전 1352-1336 년) • 스멘크카레 = 네페르네페루아텐(Smenkhkare = Neferneferuaten: 기원전 1138-1336 년) 등 투탕카멘 이전의 파라오들을 차례로 모셨던 노련한 정치가였지만 즉위 당시 이미 60 세를 넘긴 나이였다. 4 년 후 그가 사망하자 이번에는 투탕카멘 재위 당시 군의 총책임자였던 호렘헵(Horemheb: 기원전 1323-1295 년)이 파라오가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질문 *qui bono* 즉,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통해 앞의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투탕카멘이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익을 본 인물은 누구였을까? 투탕카멘의 왕비 앙케센아문?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이 혹은 호렘헵?

⁴⁶ “아아-케페르-카-레”(Aakheferkare)는 제 18 왕조 투트모세 1세(Thutmose I: 기원전 1504-1492년)의 즉위명(throne name)이다. 따라서 “아아-케페르-카-레의 영지”는 투트모세 1세가 뎀피스에 건립한 왕궁과 부속 영지를 의미하며 이 왕궁이 투탕카멘 시대까지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⁴⁷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 *twt-ꜥnh-jtn* “투탕카텐”은 “아텐/태양원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이며 왕비의 원래 이름 *ꜥnh.s-n-p3-jtn* “앙케센파아텐”은 “아텐/태양원반을 위해 그녀는 살 것이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아문 신앙으로 회귀하면서 교체된 이름 *twt-ꜥnh-jmn* “투탕카멘”은 “아문의 살아있는 형상,” *ꜥnh.s-n-jmn* “앙케센아문”은 “아문을 위해 그녀는 살 것이다”가 된다.

우선 투탕카멘의 왕비 앙케센아문은 일단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가부장제가 강력했던 고대 이집트에서 여성의 지위는 대개 남편의 지위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정비이자 (유산·사산한 2 명의 딸 이외에는) 왕위를 이을 후계자도 없는 앙케센아문이 남편을 시해하여 자신의 몰락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당시 이집트의 적국이었던 히타이트 신왕국의 수필룰리우마 1세(Suppiluliuma: 기원전 1344-1322년)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보냈다(KBo V6, Aii: 10-15): *nu-uš-ši ki-iš-ša-an IŠ-PUR LU₂-aš-wa-mu-kan₂ BA.BAD | DUMU-IA-ma-wa-mu NU GAL₂ tu-uk-ma-wa DUMU.MEŠ-KA | me-eg-ga-uš me-mi-iš-kan₂-zi ma-a-an-wa-mu | I-an DUMU-KA pa-iš-ti ma-an-wa-ra-aš-mu LU₂MU-TI-IA ki-ša-ri | IR₃-IA-ma-wa nu-u-wa-a-an pa-ra-a da-aḫ-ḫi | nu-wa-ra-an-zu-kan₂ LU₂MU-TI-IA i-ia-mi te-ek-ri-[w]a na-aḫ-mi*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수필룰리우마 1세]에게는 아드님이 많다고 합니다. 아드님 중 한 명을 저에게 주시면 그는 제 남편이 될 것입니다. 결코 제 종 중 하나를 골라 그를 남편으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Güterbock, 1956b: 94 = J. B. Pritchard, *ANET*, 319; Schulman, 1978: 47, no. 1). 이와 같은 서신은 당시 고대 서아시아의 외교관례에서 전례가 없었던 파격적인 사건이었다.⁴⁸ 타국의 왕에게 “종” – 아이 그리고/혹은 호렘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을 골라 결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왕족으로서 혹은 적법한 왕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절박한 태도로 미루어볼 때, 또한 자신의 두려움을 당시 적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의 왕에게 그대로 토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⁴⁸ 1920년대부터 수집되기 시작하여 1931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수필룰리우마의 치적』(Deeds of Suppiluliuma)은 당시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였던 핫투샤(Hattusa), 즉 오늘날의 보가스크이(Boğasköy)의 뷔윅칼레(Büyükkale) 왕궁지역에서 발굴된 토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은 수필룰리우마의 아들인 무르실리 2세(Mursili II: 기원전 1267-1237년)가 작성하였으며 투탕카멘(기원전 1336-1327년)의 죽음과 앙케센아문의 서신에 관한 내용은 이 중 “일곱 번째 토판”(Fr. 28A = KBo V6 = BoTU 41)에 기록되어 있다(Güterbock, 1956a: 47-48). 『수필룰리우마의 치적』에서 사망한 이집트 왕의 이름은 “*ni-ip-ḫu-ru-ri-ia-aš* “넵쿠루리야”(Nipkhururiya)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투탕카멘의 즉위명(throne name) *nb-ḥprw-rʿ* “넵케페루레”(Nebkheperure)를 지칭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서한을 보낸 LU₂.MEŠ KUR URU *mi-iz-ra-ma* “이집트의 왕비”는 *SAL da-ḫa-mu-un-zu-uš* “다하문주”(dakhamunzu)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집트어의 정관사-일반명사 조합인 *t3 ḥjmt-nswt* “왕비”를 단순히 음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집트의 왕비”에 대해서는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기원전 1352-1366년)의 정비였던 네페르티티(Nefertiti)·메리타텐(Meritaten)이 거론되지만 앙케센아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이 서신을 접한 수필룰리우마 1세는 전례가 없는 이런 제안에 대해 미심쩍은 반응을 보였으며 혹시라도 이것이 당시 카데쉬(Qadesh)·암쿠(Amqu) 등지에서 시리아 북부-레바논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 중이었던 이집트가 히타이트의 왕자를 인질로 만들려는 음모는 아닌지 의심했다. 왕은 의전관 하투샤지티(Hattushaziti)를 이집트로 보내 실상을 파악하게 하였으며 하투샤지티는 이집트의 전령 하니(Hani)와 함께 앙케센아문의 두 번째 서신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 두 번째 서신에서 앙케센아문은 더욱 강력한 어조로 왕자를 보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에 왕은 약 90일 후 자신의 아들 잔난자(Zannanza)를 이집트로 보냈으나 잔난자는 이집트의 국경을 넘기 전 혹은 직후에 살해되었다. 당시는 아이(기원전 1327-1323년)의 재위기이므로 잔난자가 당시 시리아 지역에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면 그를 살해한 인물은 아이 그리고/혹은 호렘헵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수필룰리우마 1세는 이것이 이집트인들에 의한 살해라고 확신했다(Brier, 1998: 175-208; Dodson, 2009: 89-94). 아무튼 앙케센아문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이 두 번째 서신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녀의 분묘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밥 브라이어는 투탕카멘을 시해한 범인으로 아이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아이 역시 투탕카멘을 살해할 이유가 거의 없는 인물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정황증거를 근거로 아이가 아멘헵하트 4 세/아켄아텐의 어머니인 투야의 형제 그리고/혹은 왕비 네테르타리(Nefertari)와 호렘헵의 아내인 무트노즈메트(Mutnodjmet)의 아버지로 보고 있다(Aldred; 1957: 37-40; Tyldesley, 1999: 182-184; Silverman *et al.*, 2006, 128, 130-131; Dodson; 2009: 97-99).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아이는 투탕카멘의 총리대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할아버지 그리고/혹은 외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투탕카멘이 즉위할 무렵 이미 60 세를 훌쩍 넘긴 연로한 파워 엘리트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기 위해 무리하게 자신의 손자인 소년왕을 살해하려 했을까? 오히려 왕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적·사적 실익이 더 크지 않았을까? 아이에게는 나크트민(Nakhtmin)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아이의 치세에서는 나크트민이 아이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가 투탕카멘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이가 서거한 후 호렘헵과의 왕위경쟁에서 패하였고 그 결과 왕위는 제 18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될 호렘헵에게 돌아갔다(Reeves, 2001: 190).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투탕카멘의 사망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린 사람은 호렘헵처럼 보인다. 군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왕족은 아니었던 그는 투탕카멘과 아이를 이어 신-왕 파라오가 되어 28 년간 이집트를 다스렸으며 투탕카멘이 시작했던 다신교로의 회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더 불어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 치세에 건립된 건축물들과 조형예술 작품들을 헐어 버리거나 파괴하여 자신을 위한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자재 혹은 카르낙 신전의 탐문 충전재 등으로 사용했으며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과 투탕카멘까지의 왕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이들 이름 위에 자신의 이름을 덧씌워 새기게 했다(Murnane, 1999: 183). 그 결과 아멘호텝 4세/아켄아텐과 투탕카멘의 이름은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기원전 1295-1286 년)를 비롯한 후대의 공식적인 기록이나 왕명표(king list)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작성된 왕명표에서는 아멘호텝 3 세 다음에 바로 호렘헵의 왕명이 등장한다. 이와 같은 사건 전개를 보면 세 명의 용의자 중 투탕카멘의 시해를 주도한 인물은 호렘헵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투탕카멘을 죽인 장본인은 호렘헵일까?

호렘헵이나 아이는 이 당시를 다룬 소설·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서 대개 권력욕이 강한 음모자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된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의 객관적인 역사적 정황은 신뢰할만한 사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렘헵이 투탕카멘과 아이를 충실히 섬겼으며 이후 왕위에 올랐다고 보는 견해도 물론 존재한다(Redford, 1984: 222-225; Booth, 2009: 70). 그렇다면 국왕시해 범인은 누구일까? 사실 처음부터 범인 같은 것은 없었다.

2005 년 1 월 5 일 카이로 대학교 소아암 학과(Department of Pediatrics Oncology) 소속의 하니 압텔-라만(Hany Abdel-Rahman) 박사의 감독 하에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CT 촬영이 시작되었다.⁴⁹ 엑스레이 검시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식 CT 촬영기가 왕묘 앞에 설치된 후 진행된 이날 검시에서는 총

⁴⁹ CT 촬영을 이용한 검시 이전에도 과거에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을 자세히 검사한 결과 투탕카멘이 살해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보다 정확한 CT 촬영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평가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Boyer *et al.*, 2003: 1142-1147).

1,700 여 장의 CT 영상이 촬영되었고 이후 3 월 4-5 일 간 CT 영상의 판독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취리히 대학교 해부 연구소(Anatomic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Zurich)의 프랑크 뢰홀리(Frank Röhli) 박사와 함께, 1991 년 이탈리아-오스트리아 국경에 위치한 알프스 빙하에서 발견된 5,300 년 전의 빙하기 남성 미라 외치(Ötzi)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탈리아의 폴 고스트너(Paul Gostner) 박사와 에두아르트 에가르터-비글(Eduard Egarter-Vigl) 박사도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이슈에서 의견 일치를 보였다. CT 검사 결과 투탕카멘의 왼쪽 뺨과 목에서 말라리아 병원균(학명: *Plasmodium falciparum*)이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소년왕이 말라리아에 걸렸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였던 후두부 가격에 의한 사망설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Hawas *et al.*, 2007: 263-270; Hawas & Saleem, 2016: 101-102).

또한 2010 년 발표된 투탕카멘 왕가 프로젝트(King Tutankhamun Family Project)⁵⁰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투탕카멘은 다리 골절에 따른 감염 · 말라리아 · 켈러병(Köhler disease) 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Hawas *et al.*, 2010: 638-647). 켈러병은 6-7 세의 아동에서 발견되는 희귀한 뼈 성장판 장애 질환으로 발의 뼈가 혈액을 공급 받지 못해 괴사하는 골연골증(骨軟骨症)이다. 발이 붓고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면서 걸음걸이가 악화되는 켈러병은 투탕카멘의 왕묘에서 130 여 개에 달하는 지팡이가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준다(Reeves, 1990: 178). 아울러 미라의 DNA 분석에 기초하여 투탕카멘의 골질환이 겸상(兼床) 적혈구 빈혈증(sickle cell anemia)에 의해 유발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 역시 제기된 바 있다(Timmann, 2010: 2473-2475).

람세스 3 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탕카멘의 시해와 관련한 오랜 의혹 역시 첨단 의료기술을 통해 해결되었다. 여기서 조금 더 집요하게 누군가가 투탕카멘의 다리를 고의로 부러뜨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¹ 그러나 양케센아문이나 아이, 호렘헵과 같은 왕의 최측근이었다면 그를 살해하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독살 혹은 교살과 같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증거 역시 남기지 않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투탕카멘은 세대를 거듭한 왕실 내 근친혼에 따른 DNA 풀의 약화로 인한 여러 만성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이른 나이에 이들 증세가 악화되면서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끝으로 첨단 의학기술이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세계사의 여러 난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더 많은 기여할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⁵⁰ 2007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진행된 투탕카멘 왕가 프로젝트(Tutankhamun Family Project)에서는 투탕카멘의 미라와 신원이 밝혀진 기원전 1410-1324년 사이의 왕가의 미라 11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인류학적 · 유전학적 조사와 함께 의학에 사용되는 각종 조영술(造影術)을 이용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DNA 분석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탕카멘의 재위 시기보다 이른 시기인 기원전 1550-1479년 사이의 왕실 미라 5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수행되었다.

⁵¹ 이와 관련하여 그가 전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는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흥부의 미라과정에 대한 새로운 의학연구의 결과 현재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관련 이론은 다음 기사 참조: Alex Knapp, "Forensic Experts Claim That King Tut Died in a Chariot Accident," Forbes Magazine: 2013/11/04, Web: 2014/03/03: <https://www.forbes.com/sites/alexknapp/2013/11/04/forensic-experts-claim-that-king-tut-died-in-a-chariot-accident/?sh=3bea1cbd3f0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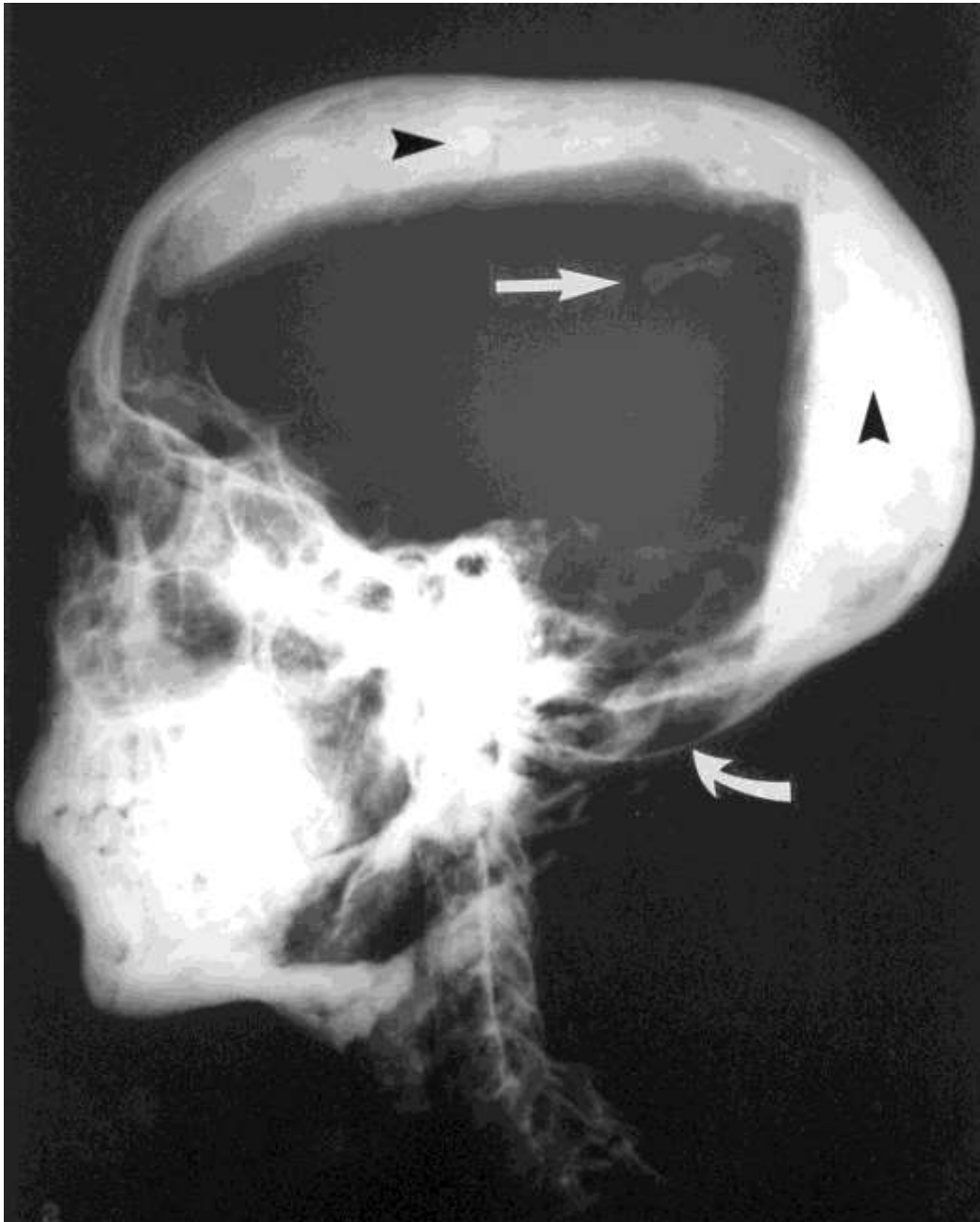


그림 4. 투탕카멘의 엑스레이 사진⁵²

1968 년 리버풀 대학교 연구진이 수행한 엑스레이 검진 과정에서 촬영된 두개골 및 척추의 측면 엑스레이 사진. 투탕카멘의 두개골은 아마르나 시대의 예술작품에 묘사된 왕족 구성원과 같이 뒤로 길게 튀어나온 모양을 보여준다. 상부의 화살표는 1925 년 부검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된 뺏조각을, 하부의 굽은 화살표는 후두개와 後頭蓋窩 (posterior fossa)의 흐릿한 부분을 각각 가리키고 있다. 검은색 화살표는 정수리와 후두부에 배어든 수지를 표시하고 있다.

⁵² 출처: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2003, 24(6) 1142-1147 (<http://www.ajnr.org/content/24/6/1142>).

부록: 제 6 왕조 · 제 11-12 왕조 · 제 18-20 왕조 왕명표

고왕국 시대 제 6 왕조 (기원전 2345-2181 년)

| | | |
|--------------|---------------------|-----------------|
| 테티 | Teti | 기원전 2345-2323 년 |
| 우세르카레 | Userkare | 기원전 2323-2321 년 |
| 페피 1 세 (메리레) | Pepy I (Meryre) | 기원전 2321-2287 년 |
| 메렌레 | Rerenre | 기원전 2287-2278 년 |
| 페피 2 세 (메렌레) | Pepy II (Neferkare) | 기원전 2278-2184 년 |
| 니토크리트 | Nitoqrit | 기원전 2184-2181 년 |

중왕국 시대 제 11 왕조 (기원전 2055-1985 년)

| | | |
|------------------|----------------------------|-----------------|
| 몬투호텝 2 세 (넵헤페트레) | Montuhotep II (Nebhepetre) | 기원전 2055-2004 년 |
| 몬투호텝 3 세 (세앙크카레) | Montuhotep III (Sankhkare) | 기원전 2004-1992 년 |
| 몬투호텝 4 세 (넵타위레) | Montuhotep IV (Nebtawyre) | 기원전 1992-1985 년 |

중왕국 시대 제 12 왕조 (기원전 1885-1773 년)

| | | |
|--------------------|----------------------------|-----------------|
| 아멘엠하트 1 세 (세헤텡이브레) | Amenemhat I (Sehetepibre) | 기원전 1985-1956 년 |
| 센와세레트 1 세 (케페르카레) | Senwosret I (Kheperkare) | 기원전 1956-1911 년 |
| 아멘엠하트 2 세 (눅카우레) | Amenemhat II (Nubkaure) | 기원전 1911-1877 년 |
| 센와세레트 2 세 (카케페르레) | Senwosret II (Khakheperre) | 기원전 1877-1870 년 |
| 센와세레트 3 세 (카카우레) | Senwosret III (Khakaure) | 기원전 1870-1831 년 |
| 아멘엠하트 3 세 (니마아트레) | Amenemhat III (Nimaatre) | 기원전 1831-1786 년 |
| 아멘엠하트 4 세 (마아케페루레) | Amenemhat IV (Maakherure) | 기원전 1786-1777 년 |
| 소벡네페루 (소벡카레) | Sobekneferu (Sobekkare) | 기원전 1777-1773 년 |

신왕국 시대 제 18 왕조 (기원전 1550-1295 년)

| | | |
|--------------------|----------------------------|-----------------|
| 아흐모세 (넵페히티레) | Ahomose (Nebpehtyre) | 기원전 1550-1525 년 |
| 아멘호텝 1 세 (제세르카레) | Amenhotep I (Djserkare) | 기원전 1525-1504 년 |
| 투트모세 1 세 (아아케페르카레) | Thutmose I (Aakheperkare) | 기원전 1504-1492 년 |
| 투트모세 2 세 (아아케페렌레) | Thutmose II (Aakheperenre) | 기원전 1492-1479 년 |
| 투트모세 3 세 (멘케페르레) | Thutmose III (Menkheperre) | 기원전 1479-1425 년 |
| 하트셉수트 (마아트카레) | Hatshepsut (Maatkare) | 기원전 1473-1458 년 |
| 아멘호텝 2 세 (아아케페루레) | Amenhotep II (Aakheperure) | 기원전 1427-1400 년 |
| 투트모세 4 세 (멘케페루레) | Thutmose IV (Menkheperure) | 기원전 1400-1390 년 |

| | | |
|------------------|------------------------------|-----------------|
| 아멘호텝 3 세 (넵마아트레) | Amenhotep III (Nebmaatre) | 기원전 1390-1352 년 |
| 아멘호텝 4 세/아켄아텐 | Amenhotep IV/Akhenaten | 기원전 1352-1336 년 |
| 네페르네페루아텐 (스멘크카레) | Neferneferuaten (Smenkhkare) | 기원전 1338-1336 년 |
| 투탕카멘 (넵케페루레) | Tutankhamun (Nebkheprure) | 기원전 1336-1327 년 |
| 아이 (케페르케페루레) | Ay (Kheperkheperure) | 기원전 1327-1323 년 |
| 호렘헵 (제세르케페루레) | Horemheb (Djeserkheperure) | 기원전 1323-1295 년 |

신왕국 시대 제 19 왕조 (기원전 1295-1186 년)

| | | |
|-----------------------------------|--|--------------------|
| 람세스 1 세 (멘페흐티레) | Ramesses I (Menpehtyre) | 기원전 1295-1294 년 |
| 세티 1 세 (넵마아트레) | Sety II (Menmaatre) | 기원전 1294-1279 년 |
| 람세스 2 세 (우세르마아트레-세 ¹) | Ramesses II (Usermaatre + S ¹) | 기원전 1279-1213 년 |
| 메렌프타 (바엔레) | Merenptah (Baenre) | 기원전 1213-1203 년 |
| 아멘메수 (멘미레) | Thutmose III (Menkheperre) | 기원전 1203-1200 년(?) |
| 세티 2 세 (우세르케페루레) | Hatshepsut (Maatkare) | 기원전 1200-1194 년 |
| 시프타 (아켄엔레-세테펜레) | Amenhotep II (Aakheperure) | 기원전 1194-1188 년 |
| 타웨세레트 (사트레-메리트아멘) | Thutmose IV (Menkheperure) | 기원전 1188-1186 년 |

신왕국 시대 제 20 왕조 (기원전 1186-1069 년)

| | | |
|---|---|-----------------|
| 세트나크트 (우세르카우레-메 ¹) | Sethnakht (Userkhauare + M ¹) | 기원전 1186-1184 년 |
| 람세스 3 세 (우세르마아트레-메 ¹) | Ramesses III (Usermaatre + M ¹) | 기원전 1184-1153 년 |
| 람세스 4 세 (헵카마아트레-세 ²) | Ramesses IV (Heqamaatre + S ²) | 기원전 1153-1147 년 |
| 람세스 5 세 (우세르마아트레-세 ³) | Ramesses V (Usermaatre + S ³) | 기원전 1147-1143 년 |
| 람세스 6 세 (넵마아트레-메 ¹) | Ramesses VI (Nebmaatre + M ¹) | 기원전 1143-1136 년 |
| 람세스 7 세 (우세르마아트레-세 ¹ -메 ¹) | Ramesses VII (Usermaatre + S ¹ -M ¹) | 기원전 1136-1129 년 |
| 람세스 8 세 (우세르마아트레-아 ¹) | Ramesses VIII (Usermaatre + A ¹) | 기원전 1129-1126 년 |
| 람세스 9 세 (네페르카레-세 ¹) | Ramesses IX (Neferkare + S ¹) | 기원전 1126-1108 년 |
| 람세스 10 세 (케페르마아트레-세 ¹) | Ramesses X (Khepermaatre + S ¹) | 기원전 1108-1099 년 |
| 람세스 11 세 (넵마아트레-세 ⁴) | Ramesses V (Menmaatre + S ⁴) | 기원전 1099-1069 년 |

1. 아¹ = A¹: 아켄아멘 (Akhenamun)
2. 메¹ = M¹: 메리아문 (Meryamun)
3. 세¹ = S¹: 세테펜레 (Setepenre)
4. 세² = S²: 세테펜아문 (Setepenamun)
5. 세³ = S³: 세케페렌레 (Sekheperenre)
6. 세⁴ = S⁴: 세테펜프타 (Setepenptah)

■ 참고문헌

- 유윤종 2011, 「이집트 12 왕조 시대 문학작품의 정치적 성격」, 『서양고대사연구』 28: 11-50 쪽.
- 이주현 2009, 『지식의 미술관: 그림이 즐거워지는 이주현의 미술 키워드 30』, 파주: 아트북스.
- _____ 2011, 『역사의 미술관: 그림, 한눈에 역사를 통찰하다』, 파주: 아트북스.
- 조철수 2003, 『수메르 신화: 인류의 역사시대를 시작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이야기』, 서울: 서해문집.
- 헤로도토스 2009, 『역사』, 천병희 옮김, 고양: 도서출판 숲.
- Aldred, Cyril, 1957, "The End of the El-'Amārna Period,"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3: 30-41.
- Allen, James P., 2006, "The Amarna Succession" in *Causing His Name to Live: Studies in Egyptian Epigraphy and History in Memory of William J. Murnane* (pp. 9-20), Peter Brand & Louis Cooper (eds.), Culture and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37, Brill. DOI: <https://doi.org/10.1163/ej.9789004176447.i-240.9>.
- _____ 2010, *Middle Egyptian: An Introduction 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Hieroglyph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smann, Jan, 2005, *Death and Salvation in Ancient Egypt*, David Lorton (t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ooth, Charlotte, 2009, *Horemheb: The Forgotten Pharaoh*, Stroud: Amberley Publishing.
- Boyer, Richard S. *et al.* 2003, "The Skull and Cervical Spine Radiographs of Tutankhamen: A Critical Appraisal," *American Journal of Neuroradiology*, 24 (6): 1142-1147.
- Brier, Bob, 1998, *The Murder of Tutankhamen: A 3000-Year-Old Murder Mystery*, London: Berkley Books.
- Bryan, Betsy M., 1991, *The Reign of Thutmose IV*,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he Eighteenth Dynasty before the Amarna Period (c. 1550-1352 BC),"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pp. 218-271), Ian Shaw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llender, Gae, 2000, "The Middle Kingdom Renaissance (c. 2055-1650 BC),"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pp. 148-183), Ian Shaw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e Buck, Adriaan, 1937, "The Judicial Papyrus of Turin,"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23 (2): 152-164.
- Dodson, Aidan, 1987, "The Takhts and Some Other Royal Ladies of the Ramesside Period,"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3: 224-229.
- _____, 1990, "Crown Prince Djhotmose and the Royal Sons of the Eighteenth Dynasty,"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6: 87-96.
- _____, 2009, *Amarna Sunset: Nefertiti, Tutankhamun, Ay, Horemheb and the Egyptian Counter-Reformation*,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 Dodson, Aidan & Dyan Hilton 2004, *The Complete Royal Families of Ancient Egypt*, London: Thames & Hudson.
- Frankfort, Henri, 1978, *Kingship and the Gods: A Study of Ancient Near Eastern Religion as the Integration of Society and N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azer, James George, 1963, *The Golden Bough: 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I Volume Abbreviated Edition, Toronto: The Macmillan Company.
- Goedicke, Hans, 1963, "Was Magic Used in the Harem Conspiracy against Ramesses III? (P.Rollin and P.Lee),"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9: 71-92.
- Griffith, John Gwyn, 1980, *The Origins of Osiris and His Cult*, Studies in the History Religions 40, Leiden: E. J. Brill.
- Grist, Jehon, 1985, "The Identity of the Ramesside Queen Tyti,"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71: 71-81.
- Güterbock, Hans Gustav, 1956a, "The Deeds of Suppiluliuma as Told by His Son, Mursili II,"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0 (2): 41-68.
- _____, 1956b, "The Deeds of Suppiluliuma as Told by His Son, Mursili II (Continued),"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0 (3): 75-98.
- _____, 1956c, "The Deeds of Suppiluliuma as Told by His Son, Mursili II,"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10 (4): 107-130.
- Hassan, Selim, 1953, *The Great Sphinx and Its Secrets: Historical Studies in the Light of Recent Excavations*, Cairo: Government Press.

- Hawas, Zahi *et al.* 2007, "Computed Tomographic Evaluation of Pharaoh Tutankhamun, ca. 1300 BC," *Annales du Service des Antiquités de l'Égypte*, 81: 263-270.
- Hawas, Zahi *et al.* 2010, "Ancestry and Pathology in King Tutankhamun's Famil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3 (7): 638-647.
- Hawas, Zahi & Sahar N. Saleem 2016, *Scanning the Pharaohs: CT Imaging of the New Kingdom Royal Mummies*,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 Kitchen, Kenneth A., 1982, *Pharaoh Triumphant: The Life and Times of Ramesses II, King of Egypt*, Warminster: Aris & Phillips.
- Lorton, David, 1977, "The Treatment of Criminals in Ancient Egypt: Through the New Kingdom,"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20/1, Special Issue on the Treatment of Criminals in the Ancient Near East: 2-64.
- Malek, Jaromir, 2000, "The Old Kingdom (c. 2686-2125 BC)," *The Oxford History of Ancient Egypt* (pp. 89-117), Ian Shaw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urnane, William J. 1999, "The Return to Orthodox," in *Pharaohs of the Sun: Akhenaten • Nefertiti • Tutankhamen*, Rita E. Freed *et al.* (eds.), Boston: Museum of Fine Arts, Boston.
- Peden, Alexander J., 1994, *Egyptian Historical Inscriptions of the Twentieth Dynasty*, Documenta Mundi- Aegyptiaca 3, Jonsered: Paul Åströms Förlag.
- Redford, Donald B., 1984, *Akhenaten: The Heretic King*,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dford, Susan, 2008, *The Harem Conspiracy: The Murder of Ramesses III*, DeKalb: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Reeves, Nicholas, 1990, *The Complete Tutankhamun: The King • The Tomb • The Royal Treasure*, London: Thames & Hudson.
- _____, 2001, *Akhenaten: Egypt's False Prophet*, London: Thames & Hudson.
- Ritner, Robert Kriech, 1993, *The Mechanics of Ancient Egyptian Magical Practice*, Studies in Ancient Oriental Civilization, No. 54, Chicago: The Oriental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 Roth, Silke, 2012, "Harem," Elizabeth Froom & Willeke Wendrich (eds.), *UCLA Encyclopedia of Egyptology*, Los Angeles: UEE8065.
<http://digital2.library.ucla.edu/viewItem.do?ark=21198/zz002bqmp>

- Schulman, Alan R., 1978, "Ankhesenamun, Nofretity, and the Amka Affair,"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15: 43-48.
- Silverman, David P. *et al.* 2006, *Akhenaten & Tutankhamun: Revolution & Restoration*,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 Thériault, Carolyn A., 1993, "The Instruction of Amenemhat as Propaganda," *Journal of the American Research Center in Egypt*, 30: 151-160.
- Timmann, Christian & Christian G. Meyer, 2010, "King Tutankhamun's Family and Demis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303 (24): 2473-2475.
- Tyldesley, Joyce, 1995, *Daughters of Isis: Women of Ancient Egypt*, London: Penguin Books.
- _____, 1999, *Nefertiti: Unlocking the Mystery Surrounding Egypt's Most Famous and Beautiful Queen*, London: Phoenix.
- _____, 2000, *Judgement of the Pharaoh: Crime and Punishment in Ancient Egypt*, London: Phoenix.
- _____, 2006, *Chronicle of the Queens of Egypt: From Early Dynastic Times to the Death of Cleopatra*, London: Thames & Hudson.
- Van De Mieroop, Marc, 2007, *A History of the Ancient Near East: ca. 3000-323 BC*,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Van Dijk, Jacobus, 1996, "Horemheb and the Struggle for the Throne of Tutankhamun," *Bulletin of the Australian Centre for Egyptology*, 33: 29-42.
- Verbrugghe, Gerald P. & John M. Wickersham 1996, *Berosos and Manetho, Introduced and Translated: Native Traditions in Ancient Mesopotamia and Egypt*,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ernus, Pascal, 2003, *Affairs and Scandals in Ancient Egypt*, David Lorton (t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Waddell, William G., 1940, *Manetho: History of Egypt and Other Works*, Loeb Classical Library No. 35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ilkinson, Richard H., 2008, *Egyptian Scarabs*, Shire Egyptology 30, Botley: Shire Publications.
- Yoyotte, Marine, 2008, "The Harem in Ancient Egypt," *Queens of Egypt: From Hetepheres to Cleopatra* (pp. 76-91), Christiane Ziegler (ed.), Paris: Somogy Art Publisher.